



“기름 넣을 때 됐나?”

이 평범한 말로부터 삼양은 연비를 생각합니다
기름값을 낮추는 대신 차의 무게를 낮추면



● 아직 남았네 ●●●

[금속, 유리를 대체하는 차체경량화 특수소재 개발]

삼양이 당신과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samyang
life's ingredients

華嚴書院 山仰會報



초헌관 정병석 전담대 총장

社團法人 華嚴書院 山仰會

(515-812) 全南 長城郡 黃龍面 鷓鴣寺院路 184 電話 : 061-394-0833
發行人 : 山仰會 理事長 鄭煥淡 編輯主幹 : 金梓洙

筆巖書院을 敬拜하며

金 容 河 (河西 14대손)

文鄉 장성에서 비롯하여
온누리에 새겨진 큰 이름
文正公 河西 김인후라네!

香火가 그치지 않는 필암서원
道學 節義 文章이 해동의 제일인자라고
일찌기 성균 正祖는 갈파했다네

세상 우주만물의 창조는 天命에서 비롯되고
經世의 근본은 바다 같은 德이려니
書院의 정기되어 千年 敎訓으로 서려있구나

18현정의 존귀는 東方을 빛내었고
節義는 영영한 큰 물줄기되어
民主의 터전 湖南을 적셔왔네

절로 낱고 절로 자란 사람들은
한 조각 구름되어 흘러 오가고
빛바랜 廓然樓 현판 위에서
세월은 잠이 들었는데
華表柱 시 귀절 속의 새 한 마리
창공 드높이
바람속에 홀로 맴도네

崇祖敦親의 誓願은 하늘에 달고
賢才子孫이 滿堂하여
芳名이 千秋에 燦然할지라!

※ 김용하 : 현 조선대 사범대학 겸임교수, 광주고등학교 교장 역임, 광주시인협회 회장 역임

금호 임형수와 화답한 시편

※ 금호 임형수(1514~1547) : 조선 중기의 문신. 1531년 진사, 하서 김 인후와 동년. 1535년에 별시 문과. 1541년 김 인후, 이황과 함께 호당에서 사가독서.

그는 풍채가 좋고 시문에 능하고, 활쏘기와 말 타기도 잘 하여 문무를 겸비한 나라의 큰 그릇이라 칭송받았는데, 애석하게도 1547년 윤 원형의 모함으로 사약을 받고 죽었다.

아래의 시와 시조에는 하서와 금호의 우정이 잘 드러나 있으며, 권신 윤 원형과 맞섰던 갈등과 고뇌가 잘 드러나 있다.

사수가 장차 성을 나가려고 하면서 이별의 시를 청하기에 (士遂將出城求別詩)

하서 김인후

내 친구요 동년(同年)인 임금호(林錦湖)님은
어찌 이리 바쁘게 시를 청하지
어제 와 원망스런 말을 하면서
나에게 묻기를 “왜 서로 잊었는가
왕왕이 보거드면 그대의 시가
이별의 장(章)에 끼어 전파되는데
내겐 유독 한 말도 주지 않으니
이 뜻은 진정 알기 어렵네 그려“
내 말이 어려울 게 무엇이 있나
그대가 청을 얹아 그랬던 거지
시견(詩肩)이 저녁 내내 솟더니만
문득 저 방향 잃은 사람 같더군

吾友林同年
求詩何太忙
昨來有怨語
問余何相忘
往往見君詩
播在離別章
獨不贈我言
此意其難詳
我云亦何難
在君求未嘗
詩肩聳終夕
忽忽如迷方

오늘 아침 내 홀로 취하고 보니
 시 생각 이다지도 발광증일까
 취중의 뜻을 잠간 적어 올리어
 이별의 장면을 좀 위로하리라
 갑자기 생각난 건 삼청동에서
 그대 함께 방울소리 드날렸어라
 가을바람 소매 품을 뚫고 드는데
 이부랑(吏部郎) 누구던가 허릴 꺾었네
 뒤를 이어 여러분 연형(年兄)들이 와
 열 지어 서니 바로 줄을 이뤘네
 맞진 술 서너 잔을 마신 다음에
 중당에서 붓대를 휘둘러대고
 거나하게 취하여 문을 나갈 제
 행동이 어찌 그리 창황했던고
 마침내 몸을 가눌 정신이 없어
 거꾸로 훈도방(薰陶坊)에 실려 갔다오
 이제 벌써 사 년이 지나갔는데
 모임 적고 이별의 한만 길구려
 어찌하면 또 한 번 서로 만나서
 시름에 찬 이 애를 돌려 볼 건고
 풍상(風霜)이라 겨울 추위 밀어닥치니
 풀과 나무 산 빛을 시들게 하네
 이 손 풀면 산천이 막힐 거라
 바라보며 속절없이 서성대기만

今朝我獨醉
 詩思何顛狂
 暫寫醉中意
 慰此相別場
 忽憶三清洞
 與君鑣齊揚
 秋風入懷袖
 折腰吏部郎
 繼來諸年兄
 列立儼成行
 飲酒三四鍾
 落筆於中堂
 酩酊出門外
 舉止何倉皇
 終然不自省
 倒載薰陶坊
 于今已四載
 會少別恨長
 如何又相見
 復此回愁腸
 風霜逼冬寒
 草木凋山光
 解手隔山川
 睇視空徊徨

임사수에게 주다 (贈 林士遂)

한평생 지우(知遇)하는 사람 적어라	生平少知遇
늘재는 바로 나의 종자기(鍾子期)로세	訥齋吾子期
암말인지 숫말인지 모르는 주제	不知馬牝牡
누르나 검은냐를 어찌 물으리	安問黃而驪
부음을 들은 것은 지난 경인(庚寅)년	聞訃庚寅年
무덤에 잔 올린 적 어느덧 네 돌	酹墓已四暮
그대 이름 들은 지도 역시 오래데	君名聽亦久
오늘에야 비로소 알게 되다니	今日是新知
선생을 생각하면 감회가 슬퍼	感愴爲先生
십년 가도 눈물이 쏟아지려다	十載淚欲垂
시험 삼아 이천(黟川)의 먹을 갈고서	試磨黟川墨
박명의 시 한 편을 잠간 쓰노라	暫寫薄命詩

사수가 답시를 보내오고 또 청하므로 두 번째 주다 (士遂見和又求再贈)

그대의 시 떨어져 내 손에 들자	君詩落吾手
갑자기 비바람이 휘몰아 치네	造次風雨忙
사귀를 따지자면 바로 곧 천륜	論交是天倫
잊고 안 잊음은 굳이 말하지 않소	不言忘不忘
다만 부끄러운 것은 모과를 던져	只愧木瓜投
보석의 보답을 받은 거로세	見報以瓊章
은근히 속마음을 부쳐 보내어	殷勤寄寸赤
숨김없이 다 털어 보여주다니	告諭盡其詳

감상하고 읊조려도 남은 맛 있고
 재차 읽자 처음보다 또 나아지네
 때마침 달은 정히 보름밤이라
 하얀 빛이 원방을 다 통하누나
 찬 공중에 외로운 계수 그림자
 뜬구름을 모조리 쓸어버렸네
 회해로 이 저녁에 마주 대하여
 한미당 말웃음이 무르익었소
 깜박이는 두서너 점 파란 등불이
 바람에 휘날리네 쓸쓸한 불꽃
 유유하다 자맥(紫陌)의 붉은 티끌에
 유랑(劉郎)이 몇 번이나 찾아왔던고
 아침 저녁 두둥둥 북소리 속에
 자주자주 번거롭게 따라 다녔네
 시서는 내 몰라라 펴본 일 없고
 동서의 당(堂)에서 늘 유희만 했지
 공연스레 값진 날만 허송하면서
 입 닦도록 태고시절 이야기로만
 다만 저 완동(頑童)만은 친압하잖고
 함부로 내달렸지 투계방으로
 스스로 웃었노라 자기 속인 일
 말을 하자면 말이 다시 길어져
 거기다 또 이별 말을 꺼내려 드니
 백가지가 창자 속에 얹히네 그려
 서로 보니 호을로 어찌잔 건가
 앉아서 새벽빛을 기다릴 밖에
 너에게 한잔 술을 다시 권하며
 손을 잡고 애오라지 방황하노라

諷玩有餘味
 再嚼逾始嘗
 于時月政望
 皓色通圓方
 寒空桂影孤
 掃却浮雲狂
 談諧對此夕
 語笑成一場
 青燈兩三點
 冷焰風飄揚
 悠悠紫陌塵
 幾度來劉郎
 晨暮鼓逢逢
 累累煩隨行
 詩書置莫閱
 遊戲東西堂
 公然浪度日
 刺口談羲皇
 但不狎頑童
 妄走鬪鷄坊
 欺己實自笑
 言之言更長
 又欲出別語
 百端縈中腸
 相看獨奈何
 坐待清曉光
 勸爾一杯酒
 把手聊彷徨

경임 사수와 더불어 이야기하다
(與景任士遂話)

청등을 마주앉아 두 세 사람 짝이 되어	靑燈相伴兩三人
멋지게 얘기하니 귀신이 놀래겠군	浩蕩奇談驚鬼神
더더구나 마음 아는 창밖의 달이 있어	況復知心窓外月
의기가 훨훨 날아 풍진을 벗어나네	飄然意氣謝風塵

관서로 가는 사수를 전송하다
(送士遂關西之行)

네 선랑이 바다에 노닐 땅이요	四郎遊海地
백이숙제 고사릴 캐던 터로세	二子采薇墟
가는 길은 왕공의 성곽 거치고	路歷王公郭
나라는 기자 살던 곳과 연닿네	邦連箕子居
가을이 깊어가니 사저는 멀고	秋深沙渚遠
성 예로워 나무그늘 성글하더오	城古樹陰疎
만리라 그대 행차 늦게 떠나니	萬里君行晚
서릿바람 이별의 옷깃 날리네	霜風動別裾

사수에게 화답하다
(和士遂)

찬 북소리 잔경을 알려주는데
높은 저 밤하늘에 서리 맺혀라
아스라이 들리는 개 짖는 소리
달 밝은 앞마을에 나는군 그대

寒鼓報殘更
高空霜夜結
遙聞犬吠聲
遠在前村月

사수의 운에 화작하여 증에게 주다
(和士遂韻贈僧)

삼천세계 밝은 달은 강심에 찍혔는데
고요히 향 들으며 담복 숲에 앉아 있네
솔바람 으시시 눈은 탐에 떨어지고
오경이라 학의 꿈은 구름 깊은 골짜길에
파란 이끼 대밭 길을 때때로 지나보고
도원이라 흐르는 물 곳마다 찾아보네
짚신 신고 잠깐 동안 속세에 다니면서
사람에게 의뢰하여 장단구를 거두누나

三千界月印江心
靜坐聞香蔭葛林
半榻松風山雪落
殘更鶴夢洞雲深
青苔竹逕時時過
流水桃源在在尋
芒屨暫投塵世上
憑人輸取短長吟

사수가 하답을 구하므로 (士遂求和)

궁 안의 물시계는 은 화살 툭 툭
고향 시름 천 가지 만가지로세.
바람 앞의 해 묵은 잣나무 소리
꿈 밖이라 장안의 달을 보다니.
해 다 가니 괴로운 나그네 심사
시름 겨워 눈썹이 절로 맺히네.
외로운 등불 아래 만리의 마음
삼경이라 한 조각 달이로구려.

宮漏短長更
鄉愁千萬結
風前古柏聲
夢外長安月
歲暮羈懷苦
愁多眉自結
孤燈萬里心
一片三更月

임사수의 원사를 슬퍼하여 단가를 짓다 悼林士遂(亨秀 號 錦湖) 寃死作短歌

엇그제 버힌 남기 백척장송 아니런가
적은덧 두었던들 동량재 되리러니
이뒤 명당이 기울면 어느 남기 반치리

하서선생과 지역대학의 역할

정병석(전남대학교 총장)

I.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 선생

1. 생애 및 활동사항

하서 선생은 1519년(중종 14) 김안국(金安國)에게서 『소학』을 배웠다. 1531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입학하였으며, 이때 이황(李滉)과 교우 관계를 맺고 함께 학문을 닦았다. 1540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에 임용되었으며, 이듬해 호당(湖堂)에 들어가 사가독서(賜暇讀書: 휴가를 얻어 독서에 전념)하고, 홍문관저작(弘文館著作)이 되었다.

1543년 홍문관박사 겸 세자시강원설서·홍문관부수찬이 되어 세자를 보필하고 가르치는 직임을 맡았다. 또한 기묘사화 때 죽임을 당한 제현(諸賢)의 원한을 개선하여 문신으로서 본분을 수행하였다. 그 해 부모의 봉양을 위해 옥과현감(玉果縣監)으로 나갔다.

1544년(중종 39)중종이 죽자 제술관(製述官)으로 서울에 올라왔으나, 1545년(인종 1)인종이 죽고 곧이어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병을 이유로 고향인 장성에 돌아가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였다. 그 뒤 1554년까지 성균관전직·공조정랑·홍문관교리·성균관직강 등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2. 학문세계와 저서

그의 성리학 이론은 유학사에서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한다. 그는 당시 이항(李恒)과 기대승(奇大升) 사이에 논란이 되었던 태극음양설(太極陰陽說)에 대하여, 이기(理氣)는 혼합되어 있으므로 태극이 음양을 떠나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도(道)와 기(器)의 구분은 분명하므로 태극과 음양은 일물(一物)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이항의 태극음양일물설(太極陰陽一物說)을 반대한 기대승에 동조하였다. 또한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은 모두 그 동처(動處)를 두고 이른 말임을 주장함으로써, 후일 기대승의 주정설(主情說)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수양론에 있어서는 성경(誠敬)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노수신(盧守愼)과 함께 숙흥야매잠해(夙興夜寐箴解)를 논한 내용을 보면, 마음이 일신을 주재한다는 노수신의 설을 비판하고, 마음이 일신을 주재하지만 기(氣)가 섞여서 마음을 밖으로 잃게 되면 주재자를 잃게 되므로, 경(敬)으로써 이를 바르게 해야 다시금 마음이 일신을 주재할 수 있게 된다는 주경설(主敬說)을 주장하였다.

그는 천문·지리·의약·산수·율력(律曆)에도 정통하였다. 제자로는 정철(鄭澈)·변성온(卞成溫)·기효간(奇孝謙)·조희문(趙希文) 등이 있다.

시문에 능해 10여 권의 시문집을 남겼으나 도학에 관한 저술은 많지 않다. 저서로는 『하

서집(河西集)』·『주역관상편(周易觀象篇)』·『서명사천도(西銘事天圖)』·『백련초해(百聯抄解)』 등이 있다.

3. 상훈과 추모

1796년(정조 20) 문묘에 배향되었고, 장성의 필암서원(筆巖書院)과 옥과의 영귀서원(詠歸書院)에 제향되었으며, 대광보국숭록대부 영의정 겸 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II. 지역사회와 대학

1. 지역 내 현황

광주·전남 지역에 위치한 4년제 대학은 국립대학 5개, 사립대학 15개, 특별법법인 1개로 총 21개이며, 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학명	전임교원수	총장	재학생(명)		비고
			학부	대학원	
전남대학교	1,266	정병석	20,050	7,564	국립
조선대학교	820	강동완	19,474	4,486	
순천대학교	322	박진성	7,531	1,117	국립
목포대학교	314	최 일	7,415	1,385	국립
동신대학교	281	김필식	7,092	791	
호남대학교	278	서강석	7,376	913	
광주과학기술원	268	문승현	665	1,885	특별법
광주대학교	259	김혁중	7,294	713	

세한대학교	147	이승훈	4,166	142	
광주여자대학교	138	이선재	3,881	324	
남부대학교	124	조성수	2,996	512	
송원대학교	122	최수태	2,553	49	
목포해양대학교	111	최민선	2,612	198	국립
초당대학교	108	박종구	2,791	152	
광주교육대학교	79	고재천(代)	1,404	1,035	국립
한려대학교	58	이호재	671	74	
광신대학교	50	정규남	499	658	
호남신학대학교	38	최흥진	541	667	
목포가톨릭대학교	18	이재술	570	0	
광주가톨릭대학교	16	노성기	79	40	
영산선학대학교	14	김주원	38	0	

2. 전남대학교의 설립과 발전

1) 설립 배경

1945년 광복과 더불어 일제에 눌려왔던 고등교육을 향한 국민의 열기가 폭발적으로 분출되었다. 수많은 사립대학이 설립되었고, 경제계 국대학을 토대로 국립인 서울대학교가 “국대안(國大案) 반대운동”의 곡절을 겪으며 설치되었다. 6·25전쟁 속에서도 전시연합대학이 운영되었으며, 지방민들의 뜨거운 열망 속에서 지방에도 국립대학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전남대학교는 1951년 9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북대학교와 함께 설립이 인가되었다. 1950년에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격된 도립 농과초급대학과 도립 상과초급대학, 이미 1946년 광주의과대학으로 승격되어 있었던 광주의학전문학교, 1948년 광주향교에서 개교식을 거행한 대성대학이 전남대학교에 통합되었고, 1952년 6월 9일 전남대학교 개교식이 거행되었다.

2) 설립 재원

설립 기금으로 우선 도민에게 할당하여 모은 성금 6억 3천만 원이 있었다. 둘째, 일제의 패망으로 귀속재산이 된 전남도시제사주식회사의 주식 1만 원짜리가 도민들에게 분배되어 시·군에 보관 중이었는데 전남대학교 설립기성회장을 겸임한 이을식 도지사의 권유로 주식 소유자들이 주식을 기부하여 9억 3천만 원이 확보되었다. 셋째, 도내 유림대표들의 도움으로 광주향교가 소유한 농지증권 9억 원 상당액이 기부되었다. 넷째, 도립인 광주의대와 광주농대, 목포상대의 재산이 도의회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기부되었다.

3) 모체가 된 전신 대학

① 도립 광주농과대학

1909년 광주 서문 밖(전 적십자병원, 현 서남대병원)에서 개교한 광주농림학교를 연원으로 한다. 1911년 광주공립농업학교로 개칭되었고, 임동으로 이전하였다. 1938년에는 광산군 서방면 용봉리(현 전남대학교)에 교사를 신축하였다. 해방 후인 1946년 6년제의 광주농업중학교가 되었고, 1950년 중학교 수료자가 진

학하는 4년제 도립 광주초급농과대학이 되었다. 1951년 교육법 개정으로 학제가 개편되면서 도립 광주농과대학의 설립이 인가되었다.

② 도립 목포상과대학

1920년 설립된 도립 목포상업전수학교가 1922년 목포공립상업학교로 개칭되었다. 전쟁에 광분한 일제의 강요로 1944년 목포공업학교로 개편되었다가, 1946년 목포공립상업학교로 다시 개교하였다. 호남지역 최초의 상업계 교육기관으로 명성을 쌓아 1950년 도립 목포초급상과대학이 되었다가 1951년 학제 개편으로 도립 목포상과대학으로 승격되었다.

③ 도립 광주의과대학

지역민의 의료인 양성의 숙원을 무시해오던 일제가 1944년 침략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전상자를 치료할 군의관을 양성할 목적으로 광주의학전문학교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1944년 5월 20일 수피아여고 대강당에서 개교식을 거행하였고, 1946년 광주의과대학으로 승격되었다. 1947년에는 6년제 정규 의과대학으로 인가되었다.

④ 사립 대성대학

사립 대성대학은 해방 이후 교육입국의 열망으로 전개된 사립대학 설립운동의 흐름 속에서 설립되었다.

1947년 광주향교에서 도내 유림대회가 개최되어 설립기성회가 발족되었고, 1948년 4월 광주향교 명륜당에서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1951년에는 대성대학의 재단으로서 대성의숙의 설립이 인가되었다. 대성대학은 전남대학교에 통합되었지만, 대성의숙이 불하받아 소유했던 적산 소화산업주식회사의 광천동 소재 건물과 대지는 향교재단·대성의숙·전라남

도 사이의 분쟁 속에서 전남대학교에 이전되지 않았다.

4) 전남대학교의 발전

전남대학교는 1952년 6월에 기존의 도립 광주농과대학, 도립 목포상과대학, 도립 광주의과대학, 사립 대성대학을 모체로 발족하였다. 초대총장에 최상채(崔相彩) 박사가 취임하였으며, 농과대학, 상과대학, 의과대학, 문리과대학, 공과대학의 5개 단과대학과 대학원으로 편성되었다. 1954년에 법과대학을 신설하였으며, 1961년에는 광주사범대학을 교육대학으로 개편하여 병설하였다가 1963년 3월 광주교육대학으로 분리하고, 1970년 중등교원양성소를 부설하였다가 1971년에 사범대학을 신설하였다. 1972년에는 의과대학 부속 간호학교를 간호전문학교로 개편하였다가 1979년에는 간호전문대학으로 개편하였고, 1979년 공과대학을 화학공과대학으로 변경하였다. 1980년에 행정대학원을 신설하고 문리과대학을 인문사회과학대학과 자연과학대학으로 분리하였으며, 1981년에 치과대학을 신설하고 화학공과대학을 공과대학으로, 상과대학을 경영대학으로 변경하였다. 1982년 3월에 약학대학과 예술대학을 신설하였다. 1987년 인문사회과학대학을 인문과학대학과 사회과학대학으로 개편하였다. 1988년에 수의과대학을 신설하고, 1989년에 가정대학과 산업대학원을 신설하였다. 1993년 3월 전남대학교병원을 공사화하였다.

2002년 3월 전남대학교 교목으로 ‘느티나무’를 선정하였으며, 2004년 9월에는 인문대 1호관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문화재청 제96호)되었다. 2006년 3월 여수대학교를 전남대학교 여

수캠퍼스로 통합하였다. 2008년 전남대학교 치과병원을 개원하였고,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원하였다.

3. 지역대학의 역할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이다.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지식과 과학기술을 지역사회에 이전하는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이끄는 기능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민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호흡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국립대학은 두 가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첫째, 국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반값 등록금”이나 “국립대학 등록금 무상”의 주장은 국립대학의 경우에 특히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고등교육의 질, 그 최소한의 수준을 제시하여 대학교육의 국가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교수학생 비율, 교육과정, 시설환경 등에서 고등교육기관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국립대학 중에서도 특히 전국적인 거점이 되는 10개 거점대학들은 지역중심대학들과 함께 지역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광주전남의 거점 국립대학인 전남대학교에 주어진 책무는 막중하다. 지역민의 우수한 자재들에게 수준 높은 고등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지역발전을 선도하여 지리적·계층적 양극화 해소에 앞장섬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전남대학

교는 지역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고민하고 있다. ‘지역인재 우선 선발 제도’는 물론이고, ‘시·도민 한 책 읽기’ ‘도시 텃밭’ ‘송년음악회’ 등의 프로그램을 계속하면서 지역민과 함께 하고 있다.

전남대학교는 농업 분야의 우수한 연구·교육 역량으로 전남의 농업과 농촌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자동차 분야의 탁월한 연구진과 특성화된 교육시스템을 바탕으로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차세대 자동차인 ‘수소자동차’ 개발에도 적극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대학교는 지역을 넘어 국가의 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마이크로 의료로봇 연구, 스마트에너지 실증 연구, 무인자동차 첨단농업 연구 등 대형 국책 연구과제를 잇따라 유치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다. 전남대학교는 기초학문 보호 육성에도 정성을 다하고 있다. 교육부가 3년간 87억 원을 지원하는 인문역량 강화사업을 수행하면서 호남학연구원 등을 통한 지역 전통문화와 고문헌 보존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Ⅲ. 맺음말

우리 앞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혁의 물결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빅데이터(Big Data)에 기반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드론, 무인자동차, 3-D 프린팅 등 초고도화된 과학기술의 집약체들은 이제 곧 우리의 생활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대학도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강의실 없는 교육, 이른바 무크(MOOC)가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미래 환경의 변화는 지방대학에게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고도의 과학기술 시대에는 지방이 곧 서울이고 지방이 곧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잠들지 않고 깨어있으면서 남들보다 앞서 기회를 포착한다면, 지방대학도 곧장 세계무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자원이 서울로 집중되는 “서울공화국”을 극복하여 “지방적인 것이 곧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의 거점대학은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진정으로 지역적인 것이 진정으로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남대학교는 개교 이후 65년 동안 국가사회의 인재들을 배출해왔습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평화, 민주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시절 허다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 다. 전남대학교는 이러한 자긍심(Pride) 넘치는 전통을 학생들에게 미래의 희망(Hope)으로 가꾸어낼 것입니다. Pride & Hope! 진리로 밝히는 함께 행복한 세상! 전남대학교가 걷는 이 길에 동참해주시고, 힘과 지혜를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서 김인후선생의 절의와 도학

김봉곤(산양회 이사, 원광대학교 연구교수)

1. 기묘사람과 하서선생

세상에서는 흔히 호남을 의리지향(義理之鄉)이라고 한다. 이는 호남지역이 특별히 의리를 지향하는 곳이라는 뜻인데, 호남에 이러한 기풍이 조성된 것은 주로 16세기 초 기묘사와 을사사화 연간에 의리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면서부터이다. 특히 하서선생의 활동은 후세에 두고 두고 귀감이 될 만하였다. 하서선생은 1543년 7월 22일 오후, 검토포관으로서 경연에 참석하여 중종에게 기묘사화로 사람들이 억울한 죄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기묘년 사람들이 한때 한 일이 죄다 옳지는 못하나, 그 본심은 터럭만큼도 나라를 속인 것이 없는데도 마침내 무거운 죄를 입었습니다. 그 뒤에 죄 지은 사람 중에는 대역 부도(大逆不道)하여 죽어도 죄가 남을 자라도 세월이 오래되어 혹 복직(復職)된 자가 있는데, 기묘년 사람은 오히려 상은(上恩)을 입지 못하니, 신은 홀로 불편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1519년 11월 일망타진된 기묘사람들이 모든 것이 옳지는 않겠지만, 그 본심만큼은 터럭만큼도 나라를 속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대역부도한 자들도 시간이 오래되면 복직되는데, 어찌 기묘 사람들을 복직시키지 않느냐고 주장

하고, 이어 하서선생은 기묘사람들이 주장한 소학과 향약을 복구할 것을 요청하였다.

기묘년 사람들이 숭상하던 『소학』·『향약(鄉約)』의 글도 모두 폐기하고 쓰지 않습니다. 『소학』·『향약』은 자양(紫陽) 주자(朱子)와 남전(藍田) 여씨(呂氏)의 글이며, 주자·여씨는 다 성현(聖賢)인데, 어찌 그 글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의 선비는 속상(俗尙)에 빠져서 읽어서는 안 될 글이라 하여 버리니, 더욱 불편하지 못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기묘년 사람을 아주 불계(不軌)로만 논하므로, 지금까지도 이런 말은 사람들이 다 촉범(觸犯)이라 생각하여 꺼립니다. 그러나 신의 소견은 이러하므로 감히 아립니다.

소학과 향약은 주자와 남전 여씨가 남긴 글로서, 기묘년 사람들이 숭상하던 것이라고 하여 실시를 기피하고 있는데, 이 글은 성현의 글이므로 서둘러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던 것이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묘사람에 대한 말을 꺼내기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하서선생은 기묘사람을 복직시키고, 아울러 그들이 이상시하였던 향약과 소학의 실시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하서선생의 주장은 성군으로 기대하였던 인종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시작된 문정왕후와 권신들의 발호로 좌절될 수밖에 없었으나, 출사의 의리를 정립하고 좌

절의 시기에 후세에 영원히 남을 도학과 가치관을 정립하였기 때문에, 그의 정신은 호남 뿐만 아니라 당대 사림들의 정신적인 기둥이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하서선생이 기묘사림의 복직을 주장하고 기묘사림이 이상적인 정치를 실시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기묘사림으로부터 학문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깊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8세 때 하서 선생은 전라 관찰사 조원기를 만나 나란히 연작시를 지음으로써 ‘장성신동 천하문장(長城神童 天下文章)’이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조원기는 정암 조광조의 숙부였다. 또한 국왕의 경연을 담당하였던 복재 기준도 하서 선생을 시험해보고서 “장자 세자(후일 인종)의 신하가 되겠다.”라고 칭찬하고서, 임금에게서 받은 붓을 하서선생에게 전달하였다. 복재는 정암의 문인이기도 하였다.

또한 하서선생을 가르친 인물들은 대부분 기묘사화로 인해 화를 입었다. 하서선생은 10세 때에 전라관찰사였던 모재 김안국이 찾아와 살펴보고서 ‘이 아이는 나의 소우(小友)이다. 참으로 삼대상의 인물이다’라고 감탄하였다. 이후 하서 선생은 모재를 찾아가 『소학』을 수학하고 강문(講問)하였는데, 모재 김안국 역시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곧바로 파직되었던 것이다. 죄명은 조광조와 같은 무리라는 것이다. 모재 김안국 역시 여타 기묘사림처럼 향약 실시를 독려하고 소학 교육을 장려하고 있었다.

18세 되던 해에 찾아가서 수학하였던 신재 최산두 역시 기묘사화로 인해 파직되고, 멀리 전라도 동북 땅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다.

신재는 광양출신인데, 연산군 때 일어난 무오사화로 인해 순천에 유배온 한원당 김굉필에게서 소학을 배웠고, 과거에 합격하여 중앙에 진출한 이후에는 정암 조광조와 함께 개혁정치를 주도하였다.

그는 유배생활을 포함하여 동북에서 14년이나 머물르면서, 하서선생을 비롯하여 석천 임억령, 미암 윤희춘 등의 많은 문인들을 배출하였다. 특히 하서선생과 미암과의 관계는 유달리 각별하였다. 미암은 하서선생보다 세 살 어렸지만, 1537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이듬해에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하서 선생보다 먼저 관직에 진출하였다. 그러다가 1540년 성균관시절 하서선생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생명이 위독하자, 미암은 하서선생을 자기 집안으로 데리고 극진하게 병간호를 하여 완쾌할 수 있었다. 이에 하서 선생은 미암에 대한 고마움을 평생 갖게 되었고, 이러한 우정은 미암의 아들 유경림이 하서선생의 딸과 혼인함으로써 두 집안의 세교가 대를 이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하서선생은 신재 최산두에게서 수학하였을 때 이미 사서오경을 비롯해서 제자백가와 역사책을 두루 읽어 통달하였고, 천문지리나 여러 기예에 대해서도 두루 섭렵하였다. 그런데도 부족하게 여겨 신재 최산두에게 나아가서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으니, 신재 또한 하서선생을 ‘추수빙호[秋水氷壺]’라고 하여 그의 인품과 학문이 가을물과 얼음 향아리’라고 극찬하였다.

하서선생은 1536년 스승인 신재가 세상을 떠나자 머리에 삼베 띠(首經)를 두르고 스승의 죽음을 애도하였으며, 다음해 4월 14일에는 제문을 지어 스승의 영전에 바쳤다.

突兀瀛洲。章彙陸離

우뚱쑤은 흥문관에서 문장이 홀륭하였고

九遷華省。棲息鳳池。

아홉 번 요직으로 옮겨지고 의정부에 근무하였네

遭時勇往。許身皐皐。

시대만나 용맹스럽게 행하여 고요와 기로 자처하고

經綸遠志。肯務汚卑。

원대한 뜻 경영하니 비루한 일에 힘쓸 것인가

羣猜一發。竟抵險巇。

몹 사람들 시기하자 마침내 험한 지경에 만났으니

歲丁單闕。怒焉孤羈。

그 해는 기묘년, 쓸쓸히 귀양 갔다네

索居丘林。與世相遺。

산야를 찾아 들어가 살면서 세상을 잊은 듯 하였으니

愛彼壺觴。吟嘯以嬉

저 호리병 속 술 사랑하고 시 읊조리는 것 즐겼다네

하서선생은 신재가 문장에 뛰어나고 요순의 신하를 자처하는 원대한 뜻이 있었으나, 기묘 사화가 일어나 귀양가게 되자 자연속에서 시 읊조리고 술을 사랑하였다는 것이다. 하서선생은 십팔 세 되던 해에 신재를 찾아가자 크게 기뻐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昔余獲見。丁千亥支

제가 처음 뵈은 때는 간지로 정해년이었으니

載酒黔中。相遇不疑。

검증 땅에 술을 싣고가서 서로 만나 기탄 없었지요

快談千古。囊篋旋披。

천고일을 얘기하며 쌓아 놓 책 펼쳤고

二三君子。與相追隨

두세명의 jun자들이 서로 함께 추종하였지요

黃昏一試。賴此大醫。

황혼탕 짓고 나서 큰 의원 솜씨에 의존하듯

下掃眾作。獨講屈詞。

몹 작품 쓸어내고 굴원의 초사를 익혔지요

二十五篇。歷歷肝脾。

스물 다섯편 의 글 간담을 토로하였으니

內激哀怨。外以華摛

마음속에 슬픈 원망 솟구치는데 문장은 화려하네요.

이처럼 술을 들고 찾아간 하서선생은 초나라의 애국시인 굴원의 시부인 초사를 십 여일을 익혔다. 이후로도 하서선생은 직접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시축을 보내 품평을 받았고, 이에 대해 하서선생은 “내 성글고 오활하여 글솜씨 줄렬하지만 남 다르게 허여하여 쇠가 자석 만나듯이 쌓인 의문 풀어주니 무지한 몸 다행 일세”라고 하여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였다. 이후 하서선생은 1532년 신재를 다시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고 돌아왔으며, 이후 스승을 찾아뵙지 못하다가 1536년 여름 신재의 부음을 받았던 것이다. 하서선생은 1년 뒤 지은 제문에서 신재가 크게 중용되지 못하였음을 탄식하였다.

載念今日。亨嘉有基。

생각하면 오늘날 좋은 정치 터가 잡혀서

梟狼既磔。公論在斯。

악한 놈들 제거되니 공론이 있게 되었습니다.

士氣駸駸。續乎方藥

사기도 차츰 살아나 무너졌다 이어지고

向來羣傑。聯翩羽儀。

요즘 와선 몹 호걸들 줄을 이어 등응됩니다

獨未有年。見此清夷。

유독 수명 누리지 못하여 태평 세상 못 보시니

永歎增傷。吾道之衰。

한탄한들 어찌 하겠습니까. 우리 도가 쇠한 것을.

제문을 보낸 때는 1537년 김안로 등의 훈신들이 몰락하고 규암 송인수 등이 다시 중용되는 시기였다. 하서선생은 이에 대해 훈구대신 제거되고 공론을 정해져서 사람들이 다시 등용되는 시기에 스승이 타계하심을 크게 슬퍼하고, 대신 자신이 밝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하였던 것이다.

하서선생은 신재 최산두를 통해 능주로 귀양간 정암 조광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신재가 거쳐하였던 곳인 동북과 정암이 유배되었던 능주는 바로 옆에 있는 고을로서 남면에서 동북으로 넘어오는 재에서 우측으로 가면 능주로 이어질 만큼 신대의 유배지와 정암의 유배지는 가까운 거리이다. 정암은 1519년 11월 을사사화로 능주관아가 있는 곳에 귀양을 왔다. 능주에는 정암과 조정에서 개혁을 부르짖었던 학포 양팽손이 살고 있었다. 정암은 그곳에서 학포와 함께 학문을 강론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1개월 만에 사사를 당하였다. 이에 학포는 은밀히 시신을 거두어 능성현 쌍봉(雙峰) 중조산(中條山) 아래에 가매장하였다가 이듬해 용인 선영으로 옮기고, 가매장 한 자리에는 모옥(茅屋)을 짓고 춘추로 문인 제자들과 함께 정암을 제향하였고, 후일 이곳에 죽수서원이 세워졌다.

정암과의 인연은 하서선생이 신재를 뵈고 돌아오는 길에 머물렀던 지실마을의 양산보를 통해서도 이어졌다. 양산보 역시 열 다섯 살에 정암을 찾아가 학문을 익혔던 인물로서 스승인 정암이 기묘사화로 참혹한 화를 당하자, 더

이상 벼슬에 미련을 끊고 지실마을에 소쇄원을 짓고 은거하였던 것이다. 하서선생은 돌아오는 길에 소쇄원에 들러 소쇄옹 양산보를 만나 시를 지어 주었다. 소쇄옹은 김인후보다 일곱 살 연상이었지만, 정암의 문인으로서 나이를 떠나 마음을 주고 받는 사이였다.

竹外風清耳。溪邊月照心。

대숲너머 바람 귀를 맑게 하고 시내가 밝은 달은 가슴을 비추네

深林傳爽氣。喬木散輕陰。

깊은 숲은 서늘한 기운 보내주는데 치솟은 나무엔 열은 안개 흩어지네

酒熟乘微醉。詩成費短吟。

술 익자 살며시 취기가 오르고 시 이루자 짧은 노래 흥얼거리네

數聲聞半夜。啼血有山禽。

한 밤중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피눈물 자아내는 두견이 아니던가

하서선생이 소쇄원에 들리니 대숲과 밝은 달이 마음을 맑게 하고, 좋은 벗과 함께 시주를 즐기건만, 사회에 희생된 사람들의 한 맺힌 소리인양 피눈물 자아내는 두견새 소리에 그만 마음을 상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서선생이 스승인 신재를 찾아가는 길은 스승인 신재나 정암 조광조, 벗인 양산보 등이 모두 기묘사화와 관련되어 있어서 일종의 기묘사림의 정신이 깃든 순례코스였다고 할 수 있고, 하서선생이 기묘사림의 정신을 갖게 된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후일 하서선생은 순창에 은거하였을 때인 1549년 7월, 남원 금지에 살고

있었던 죽계 안전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묘 제현첩서」를 쓰게 되었다. 죽계의 부친 사제당 안처순은 성균관박사를 지내다가 1518년 구례현감으로 부임하였는데, 이 때 정암 조광조, 자암 김구, 충암 김정, 신재 최산두 등 동료와 친구들이 이별을 아쉬워하며 선정을 기대하는 글을 써 주었다. 죽계는 이 글과 평소 부친이 기묘사림과 왕래한 글을 모아 두 권의 책을 만들어서 하서선생에게 그 서문을 요청한 것이다. 하서선생은 기묘사림들의 정신과 그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기묘사림들은) 서로 더불어 경전을 담론하고, 도의를 강명하여 자상하고 간절하게 선을 살피고 인을 도왔다. 비록 그 도를 마침내 행하지 못하였다고는 하나, 지금에 이르러서도 학자들이 왕왕 사숙하고 듣고서 그 추향을 어지럽히지 않으니, 성대하다고 할 것이다.

하서선생은 기묘사림들이 서로 도의를 강론하고 착한 행실을 권면하였음과 후인들도 그들을 사숙하여 추향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많다고 하여 기묘사림들의 정신을 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2. 인종과의 수어지교(水魚之交)

하서선생은 1540년(중종35) 10월 조정에서 실시한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중종 치세의 말기에 해당되는 이 시기는 권신이었던 김안로 사후 모재 김안국 등의 사람들이 진출한 시기여서, 이러한 시국을 담당할 만한 참신하고 능력있는 새로운 인재가 필요한 때였다. 당시 하서선생에게 질의한 문제는 유교적

인 치세와 성리학의 진흥 방안에 관한 것이었다. 즉 기화(氣化)와 인사(人事)가 왜 달라지는가, 시경의 편차는 왜 완전하지 못한가, 학자들이 노자와 불교와 같은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성리학을 흥기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한 4가지 질문이었는데, 하서선생은 이에 대해 장문의 책문을 지어 막힘없이 풀어내었다.

기화와 인사에 대해서는 세상에 도리가 없는 듯한 시대에도 인사를 다하면 기화는 쇠하고 이치가 회복된다고 설파하였다. 시경에 대해서는 시경의 편차나 국호의 동이(同異)는 지엽적인 것이니, 그 보다는 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성정(性情)의 사정(邪正)을 밝혀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흥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단에 대해서는 임금이 마음을 바르게 하고 선왕의 도를 밝혀서 백성을 인도한다면 백성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성리학은 마음에서 터득하여 용에 베푸는 것이 중요하므로, 성정을 기르고 실질에 힘써야지 문자를 기송하는 학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하서선생의 주장을 알아주고 크게 칭찬한 이는 하서선생이 10세 때 소학을 배웠던 모재 김안국이었다. 모재 김안국은 당시 독권관으로서 하서선생이 제출한 답안지를 종종 임금께 직접 아뢰었고, 종종 역시 하서선생의 과거급제를 기뻐하였다. 이에 하서선생은 곧바로 초입사의 요직인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에 임용되었고, 이듬해에 4월에는 호당(湖堂)에 들어가 사가독서(賜暇讀書)하여 조정의 기대를 모았다.

이어 하서선생은 그해 10월 홍문관 정자로

임명되었고, 다시 1년 뒤인 7월에는 정8품인 홍문관저작(弘文館著作)으로 승진하였다. 그는 과거에 급제한지 2년이 못 되어 종9품에서 네 단계를 뛰어올라 정8품, 그것도 당대의 요직인 홍문관의 직책이었으니, 그가 얼마나 중용되었던가를 잘 알 수 있다. 이후 하서선생은 다시 1543년 4월에 정7품의 홍문관박사 겸 세자시강원설서가 되었다. 세자시강원은 세자의 교육과 보도(輔導)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에 하서선생은 9살 때 복재 기준이 예언한 대로 당시 세자였던 인종의 스승이 되었던 것이다.

인종은 1515년(중종 10) 중종과 두 번째 부인 장경왕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모후인 장경왕후가 인종을 낳고 엿새 만에 돌아가시니 인종은 이후 중종의 세 번째 부인인 문정왕후 윤씨 밑에서 자랐다. 문정왕후는 처음에는 인종에게 극진했으나 경원대군을 낳은 이후부터 인종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인종은 더욱 부왕인 중종에게 의지했고, 중종 역시 인종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다. 실록에 따르면 인종은 “성품이 매우 고요하고 욕심이 적으며, 인자하고 공손하며, 효성과 우애가 있었으며, 학문에 부지런하고 실천이 독실했으므로 동궁(東宮)에 있는 지 25년 동안에 어진 덕이 널리 알려졌다.”라고 한다.

하서선생은 이러한 인종에 대해 잠룡(潛龍)의 덕이 천고에 뛰어나서 후일에 당우(唐虞)의 다스림을 기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성껏 계도(啓導)하였고, 인종 또한 하서선생의 학문과 도덕이 훌륭함을 알고 정성스런 마음과 예를 다해 자주 소대(召對)하니,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水魚之交), 서로 간에 성인의 치세를 기약하였다고 한다. 유가의 이상을 실

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밀을 총괄하는 군왕과 의리로 합치되어야 하므로, 하서선생은 동궁시절 세자의 스승이었고 인종 또한 하서선생에게 기댄 것이 지극하였기 때문에 하서선생의 경륜은 인종을 통해 활짝 꽃을 피울 것이 기대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하서선생이 입직(入直)해 있을 때 동궁이었던 인종이 조용히 묵죽 한 본을 하사하였다. 인종은 원래 예술에 소질이 있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나타내 보이지 않았는데, 하서선생을 만나고서 묵죽도를 하사하고 화축(畫軸)에 시를 쓰도록 하여 하서선생의 뜻을 알아보고자 하였던 것이다.

根枝節葉盡精微

뿌리와 가지, 잎새 마디 모두 정미하고

石友精神在範圍

바윗돌의 정신 또한 범위 안에 있네

始覺聖神侔造化

비로소 알았네. 성스러운 우리 임금 조화를 짝하시니

一團天地不能違

천지와 하나로 뭉쳐 어김이 없는 것을

하서선생은 대나무의 뿌리와 가지 잎새, 마디마디가 바위 위에 역세게 피어난 것을 그린 것을 찬탄하고서, 인종이 천지조화와 짝하여 성인의 치세가 될 것임을 노래하였던 것이다. 훗날 인종의 묵죽도와 하서의 시재에 대해 선조 때의 문장가 상촌 신흠은 인종은 하늘이 내린 성인으로서 그림도 신묘한 경지에 이르렀고, 김인후 역시 신하로서 인종을 만난 것이 천재일우의 기회였다고 하고서 인종이 1년 만에 승하하였으니 천명이 어찌하여 어긋났는가

라고 탄식하였다. 또한 영조 대의 문신인 초천(曹川) 김시찬은 인종이 특별히 대와 돌을 그려서 하서선생에게 내린 것은 장래에 닥쳐올 일을 먼저 알고서 그 빼어나게 아름다워서 뒤에 시드는 절개와 견고하여 변하지 않는 지조를 살피어 다른 날에 대비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김인후 역시 그 그림을 통해 기미를 알게 되었으니 그 경지가 신묘하지 않느냐고 탄식하였던 것이다.

이어 인종은 하서선생에게 새로이 간행된 『주자대전(朱子大全)』 한 짚을 하사하였다. 『주자대전』은 1543년 간행되자마자 하사된 것이다. 하서선생은 인종에게서 이 책을 받고 주목으로 구절에 표점을 찍어 노상 읽으며 그치지 않았다고 하니, 그가 얼마나 주자대전에 잠심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후일 그는 순창 점암촌에 은거하였을 때 문인들에게 『주자대전』을 강론하고 「대학강의발」을 짓는 근원이 되었다. 또한 하서선생 생존시에 고봉 기대승 역시 주자의 글을 요약한 『주자문록(朱子文錄)』을 지었으니, 『주자대전』은 김인후 뿐만 아니라 고봉 등 호남 지역 사람들에게도 널리 익혀졌고, 퇴계 이황도 고봉에게 술회하였듯이 호남에 많은 주자학자가 나왔던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하서선생은 인종을 통해 요순과 같은 정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는 인의의 왕도정치를 이상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하서는 민생의 안정과 교화를 중시하였다. 하서선생은 교화를 실시하려면 먼저 민생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하서선생의 견해는 공자의 민생을 주장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하서선생에 의하면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

는 세울을 낮추고 탐관오리의 탐학을 방지하고, 굶주린 자를 구제하고, 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하서선생의 주장은 최소한의 가정 경제를 살리면서 국가정책의 이념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최소한의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사족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인 독서와 최소한의 네트워크 형성에 필요한 접빈객봉제사를 위한 물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에 하서선생은 지나친 사치를 경계하였다. 사치는 물욕과 같은 사리사욕을 추구하게 되어, 공익을 해치는 것이므로, 중절과 중화의 도덕적 수양과 소비와 생산의 조화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또한 하서선생은 기자의 홍범의 정치를 이상으로 여겼다. 홍범은 우(禹)왕이 요순(堯舜) 이래의 사상을 집대성(集大成)한 정치 도덕의 기본적 아홉 법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자를 통해 주나라 무왕에게 전해진 것이라고 한다. 홍범은 중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영, 정조 때의 정치원리이기도 하다. 하서선생이 홍범의 정치를 이상으로 여긴 것은 을사사화 이후 「양광위노론(佯狂爲奴論)」을 짓고 스스로 기자와 같은 인물로 자처하였고, 후일 사위인 고암 양자징에게 「홍범설시작괘지도(洪範揲蓍作卦之圖)」를 가르쳤던 사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홍범설시작괘지도」는 계의(稽擬), 즉 국가에 중대사가 있을 때에 시초점을 쳐서 나온 괘사를 홍범의 원리로 풀이하여 해결한 글인데, 이를 통해 하서선생이 서경을 비롯한 홍범 구주의 정치원리에 대해 정통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종의 치세는 하서선생이 기대한 만큼 튼튼한 정권은 아니었다. 이것은 인종이

즉위하기 10개월 전 1544년 1월 일어난 동궁전(東宮殿) 방화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즉 동궁전이 모두 불타서 세자가 창덕궁으로 처소를 옮겼는데도, 끝내 방화를 일으킨 책임자를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범인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끝까지 추국한다면 큰 옥사(獄事)가 일어날까 두렵다는 것이다. 사건의 주모자를 찾아내지 못하고 단지 주방의 여종을 매를 치고 관사의 고역(苦役)을 맡도록 한 것이 고작이었던 것이다. 또한 하서선생이 기묘사화를 일으킨 심정 등을 소인으로 지목하고 화를 당한 조광조 등의 신원을 적극 주장하였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그해 겨울 부모 봉양을 이유로 외직인 옥과현감(玉果縣監)으로 나아갔다.

그해 11월 중종이 죽고 인종이 왕위에 올랐으나, 중종의 고명대신 좌의정 홍언필은 문정왕후의 소생인 경원대군의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어전에서 중종의 제사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였다. 중종이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제사를 폐지자는 이러한 무례는 문정왕후를 중심으로 하는 소윤측의 비호가 있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서서히 을사사화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하서선생 역시 중종이 죽자 1545년(인종 1년) 4월 제술관(製述官)으로 부름을 받아 다시 상경하였다. 그러나 상경해서 대비전에서 상을 치루고 있는 인종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인종의 처소를 대비전에서 옮길 것을 주장하고, 하서선생 본인이 처방에 동참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약원의 직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되고, 처소를 옮기자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하서선생은 다시금 좌절하고 옥과현감으로 되돌아갔다. 결국 그해 7월에 인종이 승하함으로써 인종을 통해 성인의 정치를 실현하려고 하였던 하서선생의 이상이 무너진 것이다.

3. 하서선생의 절의

－ 엄동설한의 송백이 이보다 더하라

하서선생은 인종이 승하하였다는 소식을 옥과 관아에서 들었다. 그는 실성해서 부르짖고 가슴을 두드리며, 살고 싶지 않다고 통곡하다가 심질이 발생하였다. 기절하였다가 다시 소생하였으나,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귀가하였다. 하서선생은 인종이 부르자 상경하여 성인의 정치기를 기대하였으나, 죽어가는 인종을 위해 처소를 옮길 것과 약방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거절되었다. 하서선생은 그 기미를 알았으나 그 일을 막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에 하서선생은 「조신생론」을 써서 중국 춘추시대 때 의붓 어머니 여희(麗姬)에 의해 죽음을 당한 진나라 태자 신생의 죽음을 조문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기막힌 현실을 비판하고 인종의 죽음을 조문하였다.

－ 신생(申生)을 조문한다 -

사람에게 그치지 않는 지극한 마음 있으니, 배어내고 독여내도 없애지 못한다네

세상 사람들 어진 일 엄폐하기 좋아하는데 세자는 어찌 그 자취 뚜렷한가

어지러이 죄에 걸려든 것은 아버지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이었네

오로지 임금만 생각하였지 딴 일 없으니 미혹하여 괴임받은 길 몰랐다네

사람에게 누구나 지극한 마음 효심이 있는데, 그 자취가 세자에게 너무나 뚜렷하여 부왕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이 죄에 걸려든 것을 몰랐다고 하였다. 하서선생은 신생을 통해 부친인 중종에 대한 지극한 효성에도 불구하고 인종이 계모인 문정왕후의 미움을 받았던 사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하서선생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무리를 떠나 마땅히 피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상스럽지 못한 때를 만났으니 마땅히 무리를 떠나
쓸모없이 지내야했네
모친 제사하고 부친에게 죄 얻었으니 이 어찌 인정으로 측량할 바이라
참소 또한 다른 사람의 짓이 아니니 세자의 부르짖음 설 새 없구려
육일을 지적하여 해명한다면 임금 마음 상하리니 또 아니되네

다른 나라로 도망가더라도 아비 없는 곳이 어찌 있으랴
세자의 마음 내 헤아려보니 대개 슬퍼하고 용서한 것 일세
사람들은 아비 허물 드러냈다 하는데 그는 어떤 마음이기에 생각못하나
옛적 순은 큰 매에는 도망쳤으니 대효가 아니면 뉘 용납하리
도피할 곳 없다하여 앉아 죽으니 내 또한 공의 이름 불만이로세

하서선생은 신생의 경우 마땅히 무리들을 떠나야 했다고 하여 순임금과 비교하여 신생의 처지를 노래하였다. 즉 순임금은 부친이 매

를 때려 죽이려고 하자 도망쳤으니 이것이 효도가 되는 것이지, 신생처럼 피하지 않고 앉아 죽은 것은 불효라고 하였다. 이는 인종이 문정왕후의 처소에서 떠나지 못하고 미움 받아 죽은 사실을 암시하였던 것이다. 하서는 이처럼 간접적으로 인종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신생의 처지를 잘 모르고 불효라고 하는 것도 난신적자라고 성토했다.

그런데도 붓대를 쥔 우리 성인은 어찌하여 놓아주고 추궁하지 못했나
참으로 인에 뜻을 두면 악이 없으니 내 이제야 진실로 그러함을 알겠네
후세에 어버이에게 순종을 허물로 여기니 면하려고 하늘을 어기네
다시 난신적자 발을 붙이어 그들은 세자더러 불효라 하네
죄를 피하고 찬탈 다투며 제 마음 깨끗하다 내세우다니
누가 세자의 속 마음을 알아주랴, 아득한 저 하늘만을 쳐다볼 뿐
심사가 산란하여 풀리질 않아서 홀로 천년아래 방황하네

이처럼 하서선생은 신생은 부모에게 순종한 효자인데도 허물로 여기고 난신적자들은 세자를 불효하였다고 하니 세상에 누가 신생의 마음을 알아줄 것인가라고 하여 한탄하고서, 인종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서글픔을 극적으로 드러내었던 것이다.

하서선생은 옥과현감을 사직하고 향리로 돌아왔다. 머리에는 수질을 쓰고 인종의 죽음을 슬퍼하였으며, 매년 인종의 기일인 7월 1일에

는 마을 남쪽의 난산(卵山)에 올라가 북쪽을 향해 꿇어앉아 온종일 통곡하였다. 하서선생은 이후 1547년 봄에 직장에 제수되고, 다시 가을에 공조 정랑에 제수되었으나 병을 핑계로 나아가지 않았다. 다시 검토평이나 전라도 도사에도 제수되었는데도 출사하지 않았다. 대신 기묘사람들이 주장한 소학, 향약을 일으킬 것을 다시 아뢰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조정을 장악한 훈구대신들의 뜻과 어울리지 않아서 채택되지 않았다. 이후로도 성균관전적, 홍문관교리 겸 경연시독관 춘추관 기사관, 성균관 직장 등이 연속 제수되었으나 신병을 이유로 모두 사양하였다. 이처럼 벼슬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선조 때에 중봉 조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공주(公州)의 주학 제독관(州學提督官) 조현이 상소하여 학정(學政)의 폐단을 논하면서 시사에 대하여 극력 아뢰었다. 그 상소에, “ 또한 서경덕(徐敬德)이 화담(花潭)에 은둔한 것과, 김인후(金麟厚)가 벼슬에 뜻을 끊은 것과, 조식(曹植)·이항(李恒)이 바닷가에 숨어서 살았던 것 등은 모두 을사년의 사회가 격분시킨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서경덕이나 조식, 이항, 그리고 이 명종이후 벼슬을 끊은 것은 을사사화 때문이라는 것이다. 을사사화는 문정왕후의 밀지를 받은 척신인 윤원형이 권신인 이기와 결탁하여 윤임 및 사림파에게 타격을 가한 정치보복으로서, 하서선생과 가까웠던 규암 송인수, 미암 유희춘, 소재 노수신, 회재 이언적 등이 모두 을사사화를 당해 죽음을 당하거나 귀양을 갔던 것이다. 반면에 훈구대신들은 을사사화 이후 명종의

보위를 굳혔다는 명분으로 공신책록을 서둘러 28명을 위사공신(衛社功臣)으로 봉하여 강력한 정치세력을 이루고, 사림들을 압박하였던 것이다. 하서선생은 당시 사화를 입은 인물에 대해서 「조비간론」을 써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위로하였다. 비간은 은나라 마지막 임금인 주왕(紂王)의 숙부인데, 주왕이 달기(妲己)에 빠져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주색을 빠지자, 정치를 바로잡을 것을 건의하다가 처참하게 살해된 인물이다. 충간하는 비간에게 주왕(紂王)은 화를 내며 “성인(聖人)의 심장에는 구멍이 일곱 개나 있다고 들었다”라며 진짜 그런지 확인하겠다며 비간의 심장을 꺼내도록 하였다고 전한다. 이후 은나라는 도처에 반란이 일어나고 쇠약해져 기원전 1046년 주(周)나라 무왕(武王)과의 목야(牧野)의 전투에서 패하고 주왕은 자살하였다.

— 조비간사 —

슬프도다 왕자의 충직함이며. 마침내 난리 세상을 만났으리라

상저 뒤편 반드시 옥배 따르니 지탱 못해 하늘이 버린 거로세

그대는 왜 그 사이에 방황만 하여 한 몸 없어져도 걱정 않는지

강개히 끝은 말만 늘 들이매니 모두들 우자로만 여길 수 밖에

그대의 마음속을 내 알다마다 어찌 뒤를 염려하여 몸 보전하리

종묘 사직 눈 앞에 망해가는데 차마 보고 앉아서 구원 않으리

기자는 노예가 되고 미자는 떠나고 서백은 일어나니

조이는 두려워하였네

흰 해를 가리키며 분함을 토하되 임금은 살피기커녕
되려 성내네.

나아가 외치지도 못하니 숨 다하는 날로 한정하였네
심장이 찢어진들 변할리 있나 아홉 번을 죽어도 더욱
굳어지는 법

정기가 엉겨붙고 한이 맺히어 천년인 오늘에도 닦이질
않아

원들 할 말 다하고자 앓겠는가마는 대개 제 몸 이해
를 중히 여기네

역린에 항거하여 고단함이며 그대 같은 사람은 몇이
있으리

묵은 역사 뒤적이고 고요히 생각하며 만고를 우러르
며 한숨 짓네

하서선생은 은나라 왕자 비간이 은나라 주 왕이 상아로 수저를 만들고 옥술잔을 만드는 것을 보고 장차 그 사치가 극에 달해 나라를 망칠 것을 걱정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간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모든 사람이 숨죽이고 말하지 못할 때, 과연 임금의 비위에 거슬려 간쟁하는 그대와 같은 충직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고 한탄하였던 것이다. 하서선생은 당시 시대상황하에서 비간을 윤원형(尹元衡)에게 미움을 받아 죽음을 당한 규암 송인수와 금호 임형수와 같은 인물을 빗대어 말한 것이리라. 특히 금호 임형수는 같은 동호계원으로 의리가 분명한 인물이어서 권신 윤원형을 배척해야 한다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여 을사사화를 당하여 죽임을 당하였던 것이다. 이 을사사화에 연이어 일어난 양재역 벽서사건으로 송인수와 임형수 외에도 그와 교분이 두터웠

던 회재 이언적, 소재 노수신, 미암 유희춘, 유헌 정황, 삼계 최언수 등도 모두 귀양을 가거나 낙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하서선생은 조정에 나아가려는 뜻을 완전히 끊고 순창에 깊이 은거하였다. 그리고 1550년 나이 40세로 고향에 돌아와서는 매년 7월 인종의 기일이 되면 맥동 앞 난산에 나아가 하루 종일 통곡을 하고 돌아왔다. 정조 때의 초계문신이자 대제학을 지냈던 윤행임은 하서선생이 통곡하였던 곳에 난산비명(南山碑銘)을 짓고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성자산聖子山이 서쪽으로 십오리를 가서 필암筆巖이 되고, 우뚝하게 세워진 집이 있으니 김선생의 사우이다. 사우 곁에는 원당願堂이란 골짜기가 있는데 묘는 김선생의 의리衣履를 묻은 곳이다. 묘 남쪽에 산이 있는데 알의 모양과 같기 때문에 난산이라고 한다. 평야 한 가운데에 처하니 그 높이는 여덟 자를 미치지 못하지만, 오히려 지사(志士)와 인인(仁人)으로 하여금 서성대고 돌아보며 탄식하여 차마 떠나지 못하고 바라기를 북두와 같이 하고 우러르기를 태산처럼 하니 바로 김선생이 통곡한 곳이기 때문이다.

하서선생의 묘가 있는 원당의 남쪽에 알과 같은 모양의 난산이 있는데, 하서선생이 그 곳에서 통곡하였던 곳이기 때문에 뜻있는 선비나 어진 인물들은 탄식하고 차마 떠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어 윤행임은 하서선생이 인종이 죽은 날 그곳에 가서 북쪽을 바라보며 종일 울다가 저녁에 돌아온 것은 그만 울고자 하여도 그만 둘 수가 없어서라고 하고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처음에 선생이 강관으로서 효릉을 섬기어 날마다 세 자시강원에서 강학하여 심히 융성한 대우를 받았다. 태자가 직려에 이르러 아침 저녁으로 조용히 문답한 적도 자주 있었다. 태자가 일찍이 그림을 그렸는데, 대나무 몇 그루가 골짜기 사이에서 솟구쳐서 곧곧이 하늘을 떠받치는 형세가 있었다. 이어 선생에게 주니, 선생이 절하고 받고서 드디어 몸을 바칠 것을 허락하였다. 효릉이 보위에 오르자 어진 소문이 온 누리에 돌리어 사람들이 모두 새로운 교화를 바랐는데, 시사가 워낙 한심하여 몇 개월 만에 못 신하를 보내니, 이 때를 당해 특달한 알아줍을 입고서 무궁한 원한을 안고 곧장 하늘에 우러러 부르짖으며 그 생을 돌보지 않은 자는 오직 선생 한사람 뿐이었다. 그러니 마침내 화죽을 손에 들고 고향으로 돌아와 녹을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으니 선생이 여기에서 인종의 승하를 곡한 것이 무릇 십오 년 만에 끝났다.

세자가 친히 찾아주고 목죽도를 그려주었던 인종이 몇 개월만에 세상을 떠나 어진 교화를 펼치지 못했으니, 인종에게 몸을 바치기를 허락한 하서선생이 어찌 종일 애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신도비명을 쓴 우암 송시열은 하서선생의 이러한 절의에 대해서 마음에 천지인 삼재의 묘를 품고 몸으로는 만세 강상의 무거운 짐을 졌다고 평하였다. 즉 하서선생은 기미를 알아 물러날 뜻을 알았고, 인종이 승하하자 폐인으로 자처하다가 매양 칠월 일일이면 남쪽 골짜기에 들어가서 종일 통곡하고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유소사와 조신생의 사를 지었는데, 읽는 이로 하여금 머리칼이 치솟고 쓸개가 메어지게 하니, 이는 마음 하나에 삼재 조화의 묘리가 담겨 있고 몸 하나로 만세 강상의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이 마침내 그 진실임을 인정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이다.

4. 하서선생의 도학

－ 맑은 물위의 연꽃으로 피어나다

인종에 대한 의리와 을사사화 이후 권신들의 발호로 절의를 지키고 있었던 하서선생은 동료인 금호 임형수나 규암 송인수 등이 바른 말 하다가 권신들에게 타살되자, 자신의 처지가 은나라 때의 성인인 기자와 유사하다고 느끼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할 것인가를 정리한 「양광위노론(佯狂爲奴論)」을 지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다음과 같이 변호하였다.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자기 몸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심한 것이 없지만 도가 있는 곳은 군자가 욕되어 여기지 않았다. 내 몸을 욕되히 하는 것이 노예가 되는 것보다 천함이 없지만, 의의 편안한 바에는 군자가 천하게 여기지 않았다. 욕됨과 천함은 밖에 있고 도와 의는 안에 있는 것이니, 나는 그 안에 있는 것을 세울 뿐이요, 그 밖에 있는 것은 마땅히 순히 받아야 할 줄을 안다면 어디에 들어가도 스스로 얻지 못할 것이 없다.

그는 도와 의가 한가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도와 의는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니, 도와 의를 편안하게 즐기게 된다면 비록 욕되게 지내도 무방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독부(獨夫) 수(受, 은나라 주왕의 이름)는 교만하고 사치하고 음탕하고 인일하여 하늘도 싫어하고 사람도 지켰으니 성탕의 수백년 종묘 사직이 장차 이

성異姓에게 옮겨가게 되었으니, 할 말을 다하고 과감히 간언하면 죽음이 있을 따름이고, 선조를 받들고 제사를 보존하려면 떠남이 있을 뿐이니, 이미 죽지도 못하고 또 떠나갈 수 없는 처지라면 진실로 그 몸을 보존하고 그 무익한 죽음을 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도를 지키고 의를 행하며 떠나가는 것의 명분이 없는 것에 급급함이 없다. 내 몸이 천하고 욕되는 것도 피하지 않을 바가 있으며, 그 도의 존재한 바와 의의 편안한 바도 당초 또한 밖에 기다릴 것이 없다. 자취가 비록 예의를 버린 것에 혐의가 되더라도 도는 진실로 그대로 있으며, 일은 비록 그 몸을 가볍게 여기는 데 들어가지만 의는 일찍이 망하지 아니한다. 왜 그러한가, 불가하면 그치는 것은 매신의 도리요, 나라와 더불어 휴척休戚을 같이 하는 것은 귀척貴戚의 의이다. 하물며 간하면 갇히니 말을 울릴 길이 없고, 나라에 사람이 없으니 떠나가야 할 의가 없음에랴.

하서선생은 앞서 비간처럼 죽음으로 간언할 수 있지만, 죽지 못하고 떠날 수 없는 처지라면 선조를 받들고 제사를 보존하기 위해 굳이 무모한 죽음을 취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도와 의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이다. 간하는 것이 불가하면 그만두는 것이 대신의 도이고, 나라와 휴척을 같이 하는 것도 귀인의 의라는 것이다. 하서선생은 은나라의 유풍과 선정이 남아 있어서 혹 난세가 변하여 치세가 되고, 화가 바뀌어 복이 될 때 그 천하의 책임을 맡을 자가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여 기자처럼 자신도 그 도를 전할 책임을 안고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이리되면 기자처럼 낮추어 사는 것이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몸을 보존하는 것이요, 그 몸을 보존하는 것은

바로 그 도와 의를 보존하는 것인 동시에 끝내는 그 국가를 보전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에 그는 결론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혹은 다만 몸을 보존하는 것으로 지극하다고 하며, 도와 의가 존재하고 편안한 것은 살피지 못한다면 어찌 죽히 성현을 논할 수 있으랴. 역에 이르기를 “안은 어려우나 능히 그 뜻을 바로한다(內難而能正其志)”라고 하였고, 또 “기자(箕子)의 명이(明夷)이니 정고利貞함이 이롭다”라고 하였으니 지극하다고 할 수 있다. 삼가 논한다.

주역의 명이괘는 위괘가 지(地)이고 아래 괘가 화(火)이니 밝음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형세이다. 이러한 때에는 상황을 어렵게 여기고 곧은 도를 지켜야 이로운 것이다. 바로 이러한 도리를 실천하였던 인물이 은나라의 기자이니, 기자는 그 밝음을 감추고 그 뜻을 바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하서선생은 드디어 은나라 성인 기자에게서 몸을 보존하면서 도와 의를 실천하는 길을 찾았고, 이에 그는 몸을 숨겨 더욱 깊숙한 순창의 점암촌으로 들어갔다. 아예 그곳에 들어가 세상을 잊는 듯 하였다. 오로지 부모님 모시는 것이 자신의 즐거움으로 여겼다.

하서선생은 점암촌에 은거하면서 더욱 도학에 몰두하였다. 선생의 학문은 소학의 실천, 대학의 경세를 거쳐, 중용의 「천명도」에서 완성되었다. 스승인 모재 김안국과 기묘사림의 영향을 받아 소학과 대학을 중시하였고, 이어 인종이 하사한 『주자대전』에 잠심하여 인종의 도학에 대한 뜻을 이어갔다. 특히 『주자대전』은 주희의 『주자어류』와 함께 주자학의 정수에

해당되는 책으로, 하서선생은 이 책을 통해 주자학을 깊이 이해하였고, 마침내 그는 천지사이 공자와 주자를 나란히 언급하게 되었던 것이다.

중니는 원기이고 주자는 참된 진리이니, 자신도 말년에 공자처럼 제자들과 함께 천명을 따라 즐기다가 주희의 성리학의 진리를 따라 성정을 연마하고 싶다고 하였던 것이다.

하서선생이 남긴 대학강의나 「천명도」는 점암촌에서의 깊은 사색의 결과였다. 사위이자 문인인 고암 양자징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선생께서는 일찍이 옥천의 점암촌에 우거하였다. 자징(子澂)은 청하여 대학혹문(大學或問), 태극도해(太極圖解)의 가르침을 받는데, 두 책의 1장과 2장이 모두 탈락되었다. 선생께서는 그것을 때워 주었는데, 집주(集註)와 도해 가운데 대권(大圈), 소권(小圈), 음양교계(陰陽交系)의 확에 있어서도 본 책을 펴놓고 모사한 것과 같이 털끝만틈도 오차가 없었으니, 이것으로도 선생의 공부가 얼마나 정심하였는가를 알 수 있었다.

『대학혹문』은 주희의 평생 정력이 들어있는 「대학」을 이해하려 할 때 『대학장구』와 함께 반드시 공부해야 할 책이며, 태극도해 역시 주염계의 태극도설을 이해하려고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인데, 하서선생이 빠진 내용을 털끝만한 오차도 없이 그려 내었으니, 그 공부가 얼마나 정심하냐는 것이다. 하서선생은 대학 공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대학 한 책에 체용이 구비되고 조리가 정

연하니 이를 버리고서는 도에 나아갈 수 없다. 이 글을 읽지 않고 다른 경을 보려 한다면 마치 터를 닦지도 않고 집을 먼저 짓는 것과 같다.” 라고 하여 대학의 내용을 통해 체용과 조리를 알아야 도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는 『대학』 외에도 『논어』, 『맹자』, 『시경』, 『주역』에 대해서도 깊이 공부하였고, 특히 「태극도설」은 의리가 정심하고, 「서명」은 규모가 광대하여 그 어느 한 쪽을 폐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1549년 「대학강의발」을 짓고 『대학』의 공부를 『중용』과 『주역』, 「태극도설」과 결부시켰다.

대개 명덕이란 것은 하늘이 사람에게 명한 이치로서 사람이 그 이치를 얻어 마음에 갖춘 것이다. 그 명됨이 일찍이 밝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그 덕도 밝지 않음이 없고 그 체가 선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그 용도 지선한 것이다. 바야흐로 그 미발할 때는 적연히 움직이지 아니하여 치우치거나 기대는 바가 없이 한 몸의 주가 되니, 이른바 인의예지의 성이 그 체를 세워서 만가지 이치가 한 근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발함에 미쳐서는 느낌에 따라 틀어지고 어긋나는 바가 없이 천하의 일을 통하니 이른바 군신, 부자, 형제, 부부, 붕우의 도와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고 행동거지와 의식의 절차가 그 용을 달성하여 만물이 각기 지닌 이치를 볼 수 있다. 각기 지닌 이치는 곧 한 근원의 이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미루어가면 통하지 않음이 없고 나가보면 있지 않음이 없다.

이처럼 「대학강의발」을 통해 대학의 삼강령과 팔조목, 중용의 천명과 성, 태극도설의 태극의 이치를 결부시켰으며, 이어 하서선생은

드디어 그해 8월 「천명도」를 그렸다. 하서선생이 그린 「천명도」는 추만 정지운이 지은 「천명도」를 보고나서 자신의 견해에 따라 지은 것으로서, 이황이 그린 「천명신도」보다 4년이 앞선 것이다. 추만 정지운은 퇴계 이황에 앞서 하서선생을 찾아와 「천명도」를 보이었으니, 그 때는 1549년 8월이었다.

하늘의 도가 깊고 멀어 다함이 없으니 생생의 이치 일찍이 간단이 없다. 그 타고가는 기(機)는 이른바 음과 양이다. 동(動)과 정(靜)이 서로 어울려 그 뿌리가 되어, 만물이 아울러 질러짐과 동시에 서로 교통(流通)을 한다. 다만 형기의 사이에 질곡이 되어 능히 말지 못하니 오직 천하의 총명예지로서 지극한 정성이 일각의 정지도 없어 타고난 성(誠)을 다하는 자만이 마침내 그 기미를 살필 수 있게 된다. 이 도가 만들어짐에 있어서는 어찌 심상히 들여다보고 헤아리는 자들의 모의적인 수단만으로는 될 뿐이나 할 일이겠느냐. 나는 학문에 뜻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한 자라서 이 도를 펴 보매 서글픈 생각이 없지 않다. 정군 정이(靜而)가 조석간에 서울로 돌아가게 되니 서로 생각하는 정은 말로 다 할 수 없기에 우선 이로써 도면의 뒤에 글을 써서 전별하는 바다. 가정 기유 기유 팔월 갑인후 씀.

하서선생은 정지운이 서울로 떠나자 정지운의 「천명도」 뒤에 글을 써서 성을 다하여야 만물의 기미를 살필 수 있다고 하고서 정추만을 작별하였던 것이다.

하서선생 역시 이 때 자신의 뜻을 담아 「천명도」를 작성하였다. 하서선생이 그린 「천명도」는 천권의 성(誠)이 인권의 중(中)을 통해 화(和)로 완벽하게 발현하는 것이다. 즉 인간

의 본성인 중이 과불급없이 실현되는가가 관건이인 셈이다. 사사로운 형기에서 나온 마음 즉 인심은 과불급이 있지만, 성명에서 나온 도심은 중의 상태이다. 따라서 사람은 항상 그 기미를 살피서 도심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심을 따라야 중을 유지한다는 것은 일찍이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순임금이 다시 우임금에게 전한 도통의 핵심요소이다. “인심은 오직 위태롭고 도심은 오직 은미하니, 오직 한결같고 오직 정밀해야 참으로 그 중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였듯이 인심과 도심의 기미를 잘 살피서 그 중도를 잡고 천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천명도」를 통해서 다시 살펴보면 선은 천명에서 중으로 곧게 이어지고 다시 화(和)로 곧게 이어지며, 이와 반면에 중에서 사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악이 된다. 따라서 「천명도」에 담긴 하서선생의 사상은 천명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중은 어떻게 지키고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진하게 고민한 결과였으며, 도심에 따라 감정을 조절하는 것에 최고의 목적을 두었던 것이다. 결국 이처럼 천명과 성, 인도의 중과 화를 일치를 중시하는 것은 후일 고봉 기대승에 이어 율곡 이이가 받아들여 인심도심설과 사단칠정설로 발전시키게 되었다.

또한 「천명도」는 성(誠)으로서의 천도, 즉 원형이정의 질서가 영원히 반복된다. 자시가 되면 모든 것이 캄캄하여 모든 양이 다 사라졌는가 하여도, 자시의 절반이 지나면 양이 서서히 움직여 나타나듯이, 천도는 이처럼 그 질서를 정성스럽게 회복한다. 이 때문에, 하서선생은 “복괘에서 천지의 마음을 본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하서선생의 언급은 당시 세상이 지극히 어둠의 세계이나, 어둠이 극에 달하면 다시 밝음이 오듯이 문정왕후나 훈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머지 않아 끝날 것이라는 기대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즉 하서선생의 도학은 새 세상이 도래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면서, 이기를 분별하고 감정의 기미를 살피서 중화의 경지를 실현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하서선생의 사상과 인생은 일관지하여 천명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하서선생은 1549년 가을에 부친상을 당하자 순창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다시 장성에 돌아왔다. 그는 장성의 백화정으로 처소를 옮긴 뒤에도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아서, 퇴계와 함께 그 명성이 나란하였다. 1555년(명종 10) 참찬관 정유길이 임금에게 주자가 지은 근사록에 대해 경연을 하면서 아뢰기를 “요사이 학술과 문장을 지닌 사람들이 조정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지방에 물리가 있고 불리도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하여 학술과 문장에 뛰어난 인물이 나오지 않은 것을 한탄하였는데, 당시 실록에서는 “학술이 있으면서도 물리간 사람이란 이황(李滉)을 가리키고, 문장이 있으면서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란 김인후(金麟厚)를 가리킨 것이다.”라고 하여 하서선생을 퇴계 이황과 함께 높이 평가하였던 것이다.

하서 선생은 말년에 이를수록 성리학에 더욱 깊이 천착해 들어갔다. 1556년에는 서경덕의 「독주역시(讀周易詩)」를 읽고 차운시를 지어 서경덕의 학문이 하학(下學)을 소홀히 하고 돈오(頓悟)로 이끌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였고, 1557년 「태극도설(太極圖說)」과 「서명(西銘)」등을 깊이 숙고하여 「주역관상편(周易觀象篇)」과

「서명사천도(西銘事天圖)」를 지었다. 성리학 연구가 본격화된 것이다. 이 무렵 예학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 『家禮考誤』를 저술하여 주자가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 주었다.

1558년에는 고봉 기대승이 찾아와 일제 이항과 자신의 학설에 대한 시비를 묻자, 태극과 음양을 일물(一物)로 보는 이항의 설이 잘못되었으며, 이를 비판한 기대승의 의견이 낫다고 평하였다. 그리고 하서선생은 정암 나흠순의 인심도심설을 비판함으로써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이 소재 노수신의 설을 반박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5. 혼탁한 세상의 사표이자 조선의 영원한 스승

하서선생은 병을 얻어 1560년 1월 16일 향년 51세로 타계하였다. 삼일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 약을 올리니 부인에게 “내일은 보름날이니 제육과 술을 준비하라.”고 이르고 자녀들에게는 다음날 사당에 제수를 올리도록 했다. 보름날이 되자 아픈 몸을 이끌고 아침 일찍 일어나 갓을 똑바로 쓰고 사당에 나아갔다. 단정히 앉아서 제사 올리는 것을 다 마치니, 선생이 말하기를 “내 죽으면 을사년 이후의 관직은 쓰지 말라”고 유언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16일 병이 위급하자 자리를 바로하고 홀연히 세상을 하직하였던 것이다. 일찍이 하서선생이 어렸을 때 놀재 박상이 하서선생의 온화하고 단정한 모습을 보고 영종(令終)하리라고 했는데, 과연 그 말 그대로 하서선생은 타고난 수명을 누리 고 편안히 타계하였다. 그리고 두 달 뒤 삼월 인근의 원당산 자락에서 남쪽을 바라보이는 쪽에 장사를 지냈다.

하서선생이 타계하자 고봉 기대승이 제문을 지어 보내 우리 도가 불행하여 선생께서 세상을 버리셨으니 앞으로 어찌 선생 같으신 분이 있겠느냐고 탄식하였다. 그리고는 자신의 슬픔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제가 병으로 귀향할 때에 선생께 의지하여 의혹을 조금이나마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랐는데, 갑자기 이 지경에 이를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찌 하늘도 이처럼 믿을 수 없단 말입니까. 아, 선생께서 이제 진택(眞宅)으로 돌아가셨으니, 종유하던 즐거움과 사모하던 생각도 이제는 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어찌한단 말입니까.

고봉 기대승 역시 병으로 고향에 귀향하여 의혹된 점을 선생께 묻고 싶었는데, 이제 돌아가셨으니 종유하는 즐거움과 사모하는 생각이 모두가 허사가 되었다고 슬퍼하였던 것이다.

퇴계 이황 역시 하서선생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겼다. 퇴계 이황은 성균관과 홍문관에서 하서선생을 만나 서로 의기투합하였고, 퇴계가 풍기군수로 나아갔을 때는 하서선생이 글을 보내왔다.

백성들 그야말로 기세가 크니
수레 내려 굶주림을 주재해 주고
웃음으로 부서를 지휘해 가니
송사도 서로간에 알력이 없네

백성들에게 굶주림을 면해주고 관리들은 서로 화합하고 송사도 없어지게 되리라는 것이다. 퇴계는 하서선생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근자에 바야흐로 하서선생이 성리학

을 논한 문자를 얻어 보았는데, 그의 견식이 진실로 정밀하였다. 그가 한가한 가운데 이와 같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심히 가상(嘉尙)할 만한 데 갑자기 옛사람이 되었다고 하니 슬픔과 쓰라림이 또 보통정도가 아니다.”

하서선생의 성리학이 정밀하여 높이 평가하였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 그 슬픔이 크다는 것이다. 하서선생의 문인이었던 송강 정철 역시 스승의 맑은 인품과 뛰어난 경지를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嗚呼先生 清水芙蓉
어허 우리 선생님은 맑은 물위의 연꽃이어라
之德之純 吾無間然
그 덕과 순수함에 다른 말이 끼어들까보나
出爲瑞世之麟
나가면 세상 밝힐 기린이 되고
入爲輝山之玉
들어 앉으면 산 빛내는 옥이시라오
들어 앉으면 산 빛내는 옥이시라오

스승인 하서선생은 맑은 물위의 연꽃과 같아서 덕과 순수함은 비할 바가 없고 출처가 훌륭하여 나아가면 태평성대가 오게 할 기린이 되고 은거하면 산을 빛내는 옥과도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출처에 대해 송강은 해동의 천년에 이러한 분은 오직 하서 선생이라고 하고서, 하서선생이 매년 칠월 일일 되면 난산에 들어가 통곡하였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동방에 출처바른 사람이 없건마는
유독 담재 김인후선생 한 분일세

해마다 칠월이라 그 날이 오면
만산속에 들어가 통곡하누나

이러한 하서선생의 도학과 절의는 후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먼저 그의 출처에 대해서 송강과 동시대 인물이었던 율곡 이이는 “출처의 바름이 견줄 바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은봉 안방준은 하서선생의 인품에 대해서 “맑은 물의 연꽃이요, 광풍제월 즉 맑은 날의 바람과 비 갠 날의 달과 같다”라고 평하였다. 또한 우암 송시열은 “도학과 절의, 문장을 겸한 이가 거의 없는데, 하늘이 우리 동방을 도와[天佑我東] 하서 선생을 낳으셔서 이 세가지를 겸하게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하서의 높은 도학과 절의, 문장은 결국 1796년(정조 20) 하서선생을 문묘에 배향하면서, 정조가 하서 선생을 동방의 주자(周子)요, 호남의 공자라고 도학을 칭송한 배경이 되었다. 성명 음양의 심오한 뜻을 열어준 공이 ‘태극도’를 지은 송나라의 주염계와 같고, 그 넉넉한 인품이 호남의 공자와 같다는 것이다. 선생의 도학은 맑은 물위의 연꽃으로 피어났으며, 절의는 엄동설한의 송백보다 더하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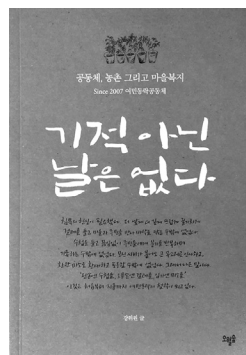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문인들 또한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더욱 학문과 역사에 충실하였다. 금강 기효간, 호암 변성온, 고암 양자징 등의 문인들은 선생의 덕과 학문을 기려 1590년 기산리에 서원을 건립하였고, 동문들끼리 단합하여 기축옥사의 참화를 벗어났다. 왜적이 쳐들어와 나라를 도륙질할 때 에는 분연히 일어나 의병운동을 전개하였다. 금강 기효간은 장성 남문에서 창의하였고, 호암 변성온은 고창에서, 그리고 고암 양자징은 담양에서 의병을 일으키

거나 지원하였으니, 이 또한 평소 하서선생의 가르침이 아님이 없었던 것이다. 하서선생의 행적과 사상은 혼탁한 세상의 사표로서 조선의 영원한 스승이었던 것이다.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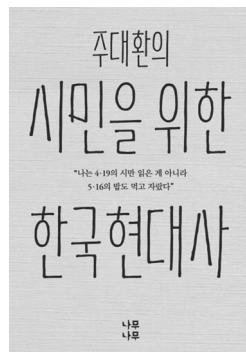
기적 아닌 날은 없다

강위원 지음, 오월썬, 10,000원



주대환의 시민을 위한 한국현대사

주대환 지음, 나무나무, 17,000원



2017년 본회 이사회 열리다

하계강연, 산양회보 편집 논의

2017년도 본회 이사회가 정 환담 이사장을 비롯한 8명의 이사와 두 분의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14일 17시에 예원식당에서 열렸다. 정이사장의 인사말과 이 충원총무의 경과보고를 듣고 안건을 논의하였다.

하계학술강연을 6월 하순에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강사로는 김 봉곤 원광대 연구교수로 결정했다. 이어서 산양회보 제29호 편집계획에 대해 논의했는데, 필암서원 원임록을 번역하여 본 회보에 연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 박래호이사가 자료를 제공하고 김장수이사가 집필하기로 했다.

또한 필암서원 제향을 복원하여 재현하는 행사를 추진하자는 의견도 논의하였으며, 하서선생 유적지 답사시행계획도 세우기로 했다.

전라도 定道 1천년 ‘하서 김인후의 생애와 사상’ 심포지엄 개최

5월 23일 14시,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018년 전라도 정도 1천년을 기념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5월 23일 14시에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장성군민과 울산김씨 종친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개호국회의원과 광주매일신문이 주최하고, 광주전남연구원 한국학호남진흥원 장성군이 후원한 학술심포지엄이 호남에서 유일하게

문묘에 배향되어 호남을 상징하는 대표적 유학자이신 하서 김 인후선생이 태어난 장성에서 첫 번째로 개최되어 매우 뜻 깊은 행사였다.

이 개호국회의원의 인사말과 박 성수 광주 전남연구원장, 남 성숙 광주매일대표이사의 환영사, 유 두석 장성군수, 서 명원 한국학호남진흥원이사장의 축사가 있었다.

박 성수원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오 종일 전주대 명예교수가 ‘조선유학에 있어서 하서선생의 학문과 위상’이라는 주제로 열강하여 청중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이어서 한국학호남진흥원 김 재수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김 덕진 광주교대 교수가 ‘하서의 학문과 대학’을, 박 명희전남대교수가 ‘하서 김 인후의 문학에 대한 논의’를, 김 봉곤 원광대 연구교수가 ‘하서선생의 도학사상’을 각각 10분씩 발표하고 종합토론을 하였다.

하서와 고봉의 삶과 새로운 정치

필암서원에서 이종범(조선대)교수 강연

지역문화교류재단에서는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로 문화탐방과 함께하는 순회강좌를 해오고 있는데, 5월 23일에 그 세 번째로 ‘선비의 사유를 담은 서원, 향교탐방’이라는 행사를 전주향교,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완판본문화관 및 장성 필암서원, 광주 월봉서원에서 30여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하였다.

전주대 홍 성덕교수가 ‘전주기록문화 유산의 복원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고, 조

선대 이 종범교수가 '하서와 고봉의 삶과 새로운 정치'라는 주제로 장성 필암서원에서 강연하였다.

의리에 도학을 겸한 호남학의 자부심, 필암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세미나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한국의 인문(人文) 공간~서원(書院)/이라는 과제를 추진 중인데, 필암서원이 전국 5개서원의 하나로 선정되어 '의리에 도학을 겸한 호남학의 자부심, 필암서원'이라는 주제로 김 봉곤교수를 팀장으로 삼아 김 상집, 노 금선, 안 정애, 박 미향선생이 매주 만나 열심히 연구하여 지난 2월 23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1차로 권역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과제담당교수 3명과 4개 서원 연구 책임자, 박 병호 필암서원원장, 김 재수 산양회이사, 울산김씨 대종회 김 상준 김 영길부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박 미향선생이 '필암서원의 연혁과 하서 김 인후-호남의 공자가 되다'를, 안 정애선생이 '김 인후의 문학과 사림-산절로 수절로 산수간에 절로절로'를, 노 금선선생이 '묵죽도와 편액에 담긴 사연-하서선생의 맑은 절개, 천고를 울리네'를, 김 상집선생이 '필암서원 공간과 건축-황룡의 길지, 혈식군자(血食君子)를 품다'를, 김 봉곤교수가 '김 인후의 도학과 절의-맑은 물위의 연꽃, 엄동설한의 송죽'을 발표하였다.

산양회 김 재수이사는 강평에서 논리적 연결을 고심한 노력이 돋보이고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여 참신함이 엿보이고 새로운 사실도 발굴하였다고 논평하였다. 아무리 위대한 사상과 관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엮어지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는다. 중복을 피하고 생생하게 스토리텔링 작업을 하고 오늘의 독자들에게 던질 메시지를 정립했으면 좋겠다고 강평했다.

중앙연구원 김 학수, 정 수환박사는 필암서원이 호남의 랜드마크임을 강조하고, 필암서원이 지역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짚어주었다. 너무 열심히 잘해주었다고 칭찬하고 오늘 이 자료를 4개서원에 표본으로 보내겠다고 했다.

박 병호 필암서원 원장께서 연구자들을 격려해주시고 저녁까지 사주셔서 모두 참으로 흐뭇했다.

제 26회 수당상 시상식 개최

이영조, 최정우, 홍윤표 교수 수상 영예

삼양그룹 창업주 수당 김연수선생의 창업정신을 기리는 제 26회 수당상 시상식이 지난 5월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려 이영조, 최정우, 홍윤표 교수가 수당상 수상자의 영예를 안았다. 수당재단(이사장은 김상하 삼양그룹회장)은 기초과학부문에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이영조 교수, 응용과학부문에 서강대학교 화

공생명공학과 최정우 교수, 인문사회부문에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홍운표 전 교수를 수당상 수상자로 선정하여 상패와 상금 1억 원씩을 수여했다.

시상식에는 권이혁 전 서울대총장, 이호왕 전 학술원회장, 고건 전 국무총리, 박승 전 한은총재 등 230여명의 귀빈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2017년도 수당 장학금 지급

2010년 하서선생 탄신 500주년 추모행사의 일환으로 시작한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고등학생 장학사업으로 매년 장성군과 순창군의 추천을 받은 우수고등학생 45명(장성30명 순창15명)에게 4월 21일에 년 800,000원씩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지금까지 지급한 현황은 장성군 210명에게 168,000,000원, 순창군 45명에게 36,000,000원, 합계 255명에게 204,000,000원 지급하였다. 앞으로도 매년 양군(장성, 순창)에 36,000,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서 김인후선생 춘향제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 하서 김인후선생(1510-1560)을 추모하는 춘향제가 3월 11일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서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병호 필암서원 원장, 정병석 전남대 총장, 정환담 필암서원 산양회 이사장, 유두석 장성군수, 김재완 장성군 의회의장과 경

향각지의 유림, 기관단체장 및 지역주민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춘향제는 제물을 바치는 봉진례, 비단을 바치는 전폐례 첫잔을 올리는 초헌례,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아헌례, 마지막 잔을 올리는 종헌례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초헌관 정병석 전남대 총장은 청절당에서 ‘하서선생과 지역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강론했다.

정 총장은 “하서 선생은 도학과 절의 문장을 두루 갖춘 호남의 큰 선비”라며 “선생의 공명정대함과 낮고 쉬운 것부터 배워 깊고 어려운 것을 깨닫는 ‘하학상달(下學上達)’사상은 학문을 탐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 대학이 꼭 배워야 할 덕목”이라고 말했다.



2017년 춘향제 추모화환

광주향교 전교	강 대 욱
장성군 향교 전교	이 권 환
성균관 유도회 광주 본총부장	김 중 채
광주향교 모성회장	이 종 섭
광주향교 제단이사장	최 흥 렬
울산김씨 대종회장	김 달 수
울산김씨문정공 도유사	김 인 수
울산김씨 밀등회장	김 상 덕
울산김씨광주지역 종친회장	김 동 식
그래이스화원 대표	김 동 원

2017년 춘향제 헌성금

2017년 월 일

姓 名	직위 및 주소	金 額	姓 名	직위 및 주소	金 額
김 상 하	하서학술재단 이사장	5,000,000	고 광 춘	장성성 청년 유도회장	50,000
김 영 수	태영전자 회장	1,000,000	김 경 수	광주시 동구 중흥로(제관)	50,000
정 환 담	필암서원 산양회 이사장	500,000	공 영 갑	장성군 문화원장	50,000
김 인 수	문정공 도유사	500,000	유 관 중	송계서원 대표	50,000
양 재 하	담양 소재원 대표	300,000	정 종 연	장성 바르게살기협의회장	50,000
김 달 수	울산김씨 대종회 회장	200,000	변 원	봉암서원 별유사	50,000
김 성 수	문정공 부도유사	150,000	김 영 일	장성군 산림조합장	50,000
김 상 현	문정공 부도유사	100,000	반 강 진	장성군 노인회장	50,000
김 승 규	문정공 부도유사	100,000	양 재 혁	소재원 종손	50,000
김 진 오	문정 친목회 회장	100,000	정 채 호	산양회 이사(필암서원)	50,000
정 환 담	산양회 이사장	100,000	양 중 호	전남 담양군 수북면	50,000
김 재 승	문정공 운영위원	100,000	윤 구 현	광주시 북구 서강로	50,000
김 재 수	산양회 부회장	100,000	문 영 수	전남 장성군 진원면	50,000
김 관 중	울산김씨 장파 도유사	100,000	김 상 준	울산김씨 대종회 부회장	50,000
이 영 만	장정 교육지원청 교육장	100,000	김 희 주	광주시 서구 유촌동	50,000
박 경 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종현관)	100,000	허 기 중	곡성 영귀서원	50,000
김 동 식	울산김씨 광주지역 종친회장	100,000	차 장 곤	장성군 축협조합장	50,000
김 문 진	광주시 북구 신안동	100,000	김 상 표	광주시 북구 운암동 현대아파트	50,000
김 용 대	울산김씨 계파 도유사	100,000	김 재 훈	전북 순창군 북흥면	50,000
김 양 수	전 장성군수	100,000	김 용 규	광주시	20,000
김 문 수	엠에스토피아 대표	100,000			

산양회 특별회비 납부자 내역

일자	姓 名	金 額	金 額	비고	일자	姓 名	金 額	金 額	비고
2015. 12. 4	김상현	광주	300,000	2016 년도 회계	2016. 9. 12	김재수	광주	100,000	
2015. 12. 17	김영근	경남	100,000		2016. 9. 12	김상표	장성	100,000	
2015. 12. 17	고달석	광주	100,000		2016. 12. 5	김재수	광주	500,000	2017 년도 회계
2015. 12. 17	김용석	광주	100,000		2016. 12. 13	김승규	광주	100,000	
2016. 7. 1	이찬희	서울	100,000		2016. 12. 13	정채호	광주	100,000	
2016. 7. 8	정환담	광주	100,000		2016. 12. 23	김용숙	광주	100,000	
2016. 7. 8	김승규	광주	100,000		2016. 12. 23	문정공친목회	광주	100,000	
2016. 7. 8	김용규	광주은하수관광	40,000		2017. 1. 26	삼양사	광고수입	2,000,000	
2016. 9. 12	정환담	광주	100,000		2017. 5. 11	필암서원학술재단		3,000,000	

… 筆巖書院 山仰會 活動事項 …

- 2001년 8월 22일 필암서원에서 고흡곤 씨 등 유림 230명이 모여 구 산양계를 ‘산양회’로 발족
- 2001년 8월 22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선생의 생애와 사상”주제 아래 安晉靑 회장(전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년 10월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추향후 “우암선생이 본 하서선생” 주제 아래 趙鍾業 충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년 12월 22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선생의 도학과 절의”주제 아래 金基鉉 전북대 윤리학과 교수의 강회
- 2002년 3월 10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 후 “인종승화와 하서의 절의”주제 아래 金鎮雄씨(서울대 공대졸, 부산 거주, 문정공파 부도유사)의 강회
- 2002년 8월 22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선생 신도비명-우암 송시열찬”을 朴來鎬씨(서원 집강)가 번역 봉독
- 2002년 9월 26일 秋享 후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선생의 천명사상”의 주제 아래 尹絲淳 고려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2년 12월 10일 회원 소식지인 山仰會報(통권제1호) 1000부를 발행 配布
- 2002년 12월 23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선생의 선비정신” 주제 아래 전주대 吳鍾逸 교수의 강회
- 2003년 3월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후 “하서 문학의 도학적 이해”의 주제 아래 朴煥圭 전남대 명예교수(담양 가사 문학관장)의 강회
- 2003년 5월 28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한시 백일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安晉靑 산양회장(전남대 명예교수, 다산학 연구원장)의 특강을 하는 등 하서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탐구 전파하는 데 기여하였음
- 2003년 6월 20일 회원 소식지인 山仰會報(통권제2호) 1,500부를 발행 配布
- 2003년 7월 13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현대한국유교의 과제” 주제 아래 서울대 종교학과 금장태 교수의 강회를 여는 등 하서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탐구 전파하는 데 기여하였음
- 2003년 9월 23일 추향제를 올리고 “하서 선생의 경연 활동과 군무 교육”이라는 주제로 전남대 안동교 교수가 강연하였음
- 2003년 12월 10일 山仰會報 제3호 1500부를 발행 배포
- 2003년 12월 17일 산양회정기총회, 安晉靑 회장과 金長洙 총무가사임하고 새회장에 朴鍾達, 새총무에 孔鍊雄 선임.“河西詩의 道學的 성격”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국학연구원 金永峯 교수가 강연함
- 2004년 3월 9일 춘향제를 올리고, 서울대 박병호 교수가 河西선생이 경연과 세자시강원에서 강한 내용을 조선왕조실록에서 뽑아 강연하였음
- 2004년 9월 25일 추향제를 올리고, 최근덕 성균관장이 “河西의 학문적 연원과 성리학적 위치”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4년 12월 10일 산양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河西의 經濟思想”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경제학과 이현창 교수가 강연함. 山仰會報4호 1500부 발행
- 2005년 3월 28일 춘향제를 올리고, “한국유림이 나아가야할 길”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전총장 洪一植 박사가 강연함
- 2005년 6월 3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연세대 송주호 교수가 “河西詩의 몇 가지 국면”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5년 9월 20일 추향제 올리고, ‘河西선생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로 이준범 고려대 전 총장이 청절당에서 강연함
- 2005년 12월 8일 산양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박종달 회장이 연임되고, ‘河西선생의 中和 思想’이란 주제로 전주대학교 吳鍾逸 교수가 강연함
- 2006년 3월 20일 춘향제를 올리고, 노강 박래호 총무가 河西 선생의 『復性賦』를 낭독하고 강론
- 2006년 7월 5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서강대 백승중 교수가 ‘조선전기의 사림정치와 하서 김인후’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6년 10월 1일 춘향제를 올리고, ‘政治人이 우리러보는 河西 先生’이라는 주제로 초현관 李重載 상임고문이 강연함
- 2006년 12월 13일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하서 김인후와 미암 유희춘」이란 주제로 조선대학교 이종범 교수가 강연함
- 2007년 4월 3일 추향제 올리고 ‘하서선생이 21세기에 유림에게 던지는 메세지’란 주제로 변은섭 유도회 총본부 회장이 강연했음
- 2007년 12월 21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조선시대 禮學의 발전과 禮治」라는 주제로 광주대학교 고영진 교수가 강연. 산양회보 10호 발간. 吳仁均 신임회장 선출

- 29호 목 차 -

필암서원을 敬拜하며 I 김용하	01
하서 시(河西 詩) 감상 I 금호 임형수와 화답한 시편	02
하서선생과 지역대학의 역할 I 정병석(전남대학교 총장)	09
하서 김인후선생의 절의와 도학 I 김봉곤(원광대 연구교수)	14
필암서원 · 산양회 소식	32

- 알 림 -

1. 변경된 새 주소와 전화번호를 써 주십시오.

- 앞으로 새 주소록을 만들려고 하니 새로이 시행될 주소와 변경된 전화번호를 방명록에 꼭 적어주십시오.

2. 회비 입금 계좌 및 입회 절차 안내

- 회원님들께서는 장성 농협(301-0093-8931-91) (사)필암서원 산양회 계좌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강연회 또는 춘추향제에 나오시거나 전화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의 농협 계좌로 입회비 3만원을 입금하시고 전화(010-2705-6395 김재수)로 다음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① 성명(한문) ② 본관 ③ 아호(한문) ④ 생년월일 ⑤ 주소 ⑥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⑦ 학력 및 경력, 현직

3. 청 · 장년, 여성 유림의 입회를 적극 환영합니다.

사단법인 필암서원 산양회 이사장

… 筆巖書院 山仰會 活動事項 …

- 2008년 3월 18일 춘향제 올리고, 「하서선생과 가사문학」이란 주제로 문경규 전 담양군수 강론
- 2008년 7월 17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박준규 박사가 「河西 문학의 道學的 이해」 강연. 산양회보 11호 발행
- 2008년 9월 20일 추향제 올리고, 柳承國 원장이 「東아시아 사상 基調로서의 道와 河西思想」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8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김재수 교수가 「河西는 佯狂爲奴論을 왜 썼는가」 강연함. 산양회보 12호 발간
- 2009년 3월 13일 필암서원에서 春香祭 올리고 安炳周 박사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학문」을 주제로 강연.
- 2009년 7월 1일 崔山斗 先生의 도학정신(최대우 교수) 강연, 山仰會報 13호 발간
- 2009년 9월 29일 추향제. 이동준 성균관대 전 유도대학장이 「하서 선생의 학문 세계」 강연
- 2009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이준영 감사 「예기유행편」 강독, 산양회보 14집 발간
- 2010년 3월 28일 춘향제 올리고 하서 선생 도학과 절의에 대한 강연.(金東炫 울곡사상연구원 이사장)
- 2010년 7월 7일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선비정신 확산을 위한 우리의 노력 (김병일 한국국학진흥원장) 하서 선생의 上李太守書에 대하여 (金正洙) 강연, 산양회보 15집 간행
- 2010년 12월 16일 광주 향교에서 정기총회, 선비의 시각으로 파악한 河西 선생 : 오종일(전주대 명예 교수) 강연
- 2011년 3월 23일 춘향제 올리고, 김병일 원장 「선현이 맺어준 아름다운 인연」을 주제로 강연
- 2011년 7월 6일 집성관에서 '한국 유학의 현대화를 위한 논점 세 가지'(전남대 김기현 교수 강연) 회보 17호 발간
- 2011년 9월 9일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심우영(전 총무처 장관, 전 한국국학진흥원장 장관) 강연
- 2011년 12월 20일 광주 향교에서 정기총회, 하서 김인후의 誠敬 사상 : 이해희(강원대 교수) 강연
- 2012년 3월 7일 추향제, 초헌관 최상옥 회장
- 2012년 7월 4일 집성관에서 '하서 선생의 시문학에 대한 후인들의 평가' 박명희 박사(전남대 호남학 연구원)
- 2012년 10월 3일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박병호 원장 「하서 선생에 대한 사관(史官)의 평가」 강연
- 2012년 12월 27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정환담 학장 : 「하서 사상의 현대사적 재조명」 강연
- 2013년 3월 22일 춘향제 올리고 초헌관 이낙연 의원 「河西의 出處는 오늘날 공직자의 귀감」 강연
- 2013년 7월 1일 집성관에서 '동춘당과 우암의 하서 존숭' 김문준 교수 강연(건양대)
- 2013년 9월 30일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이정식(호남대 공자아카데미 원장)이 '한중 호남 문화속의 악목서원과 필암서원 교류 의미와 전망'이란 주제로 강론
- 2013년 12월 13일 광주 향교에서 정기총회, 고영진 교수, '하서 김인후, 그가 만났던 사람들' 강연함
- 2014년 3월 17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이성무 한국학술원 부원장, '하서 김인후의 생애와 사상' 강연함
- 2014년 6월 25일 집성관에서 '청백리 사암 사암(思菴) 박순(朴淳)의 생애와 사상'이란 주제로 다산연구소 박석무 이사장 강연
- 2014년 9월 13일 필암서원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서정기 성균관장 '유교와 현대 민주주의' 강연
- 2014년 12월 17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후 성균관대 이기동 교수 '하서의 철학과 복성부(復性賦)' 강연
- 2015년 4월 1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뿌리회 이용규 전 회장 '강화학과 정신과 독립운동' 강연
- 2015년 10월 2일 추향제 올리고 박광순 학술원 회원 '유교의 종교성에 관한 일고찰' 강연
- 2015년 12월 17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후 오종일 전주대 교수 '하서 선생시의 천명사상과 그 지향성' 강연
- 2016년 3월 26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송하경 성균관대 명예교수 '하서선생 〈천명도 제사〉의 우리 말 해석에 대한 소견' 강연
- 2016년 7월 8일 집성관에서 김충호 훈몽재 산장 '도학의 원류와 하서선생 도학시'로 강연
- 2016년 9월 12일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고재유(전 광주광역시장) 인사말
- 2016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후 강위원 여민동락공동체 대표 '공동체는 탁월한 개인보다 지혜롭다' 강연
- 2017년 3월 11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하서 김인후 선생과 지역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초헌관 정병석 전남대 총장 강연